

2일 Market Index	
코스피 4949.67 (-274.69)	코스닥 1098.36 (-51.08)
금리 (국고채 5년) 3.152 (+0.014)	환율 (달러) 1461.40 (+21.90)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검은 반도체 '김'
수출 사상최대
03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신용 인플레’ 중·저신용자, 이자 3배 낸다

국민 45% 고신용자, 32% 저신용자
중·저신용자, 대출 2금융권 밀려
금리 평균 연 15%… 1금융 5%대

국민 절반이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 인플레’가 지속하고 있다. 국민 전반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분별력도 약해지면서 청년·가정주부·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존 신용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대안신용평가’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 ‘신용 인플레’… ‘신용점수’ 양극화

2일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 뷰로(KCB)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신용점수가 900~1000점에 해당하는 ‘고신용자’는 2247만명이다. 전체 신용평가대상 국민 5030만명의 44.7%에 해당한다. 작년 연도의 44.3%에서 0.4%포인트(p) 늘었다. 국내 성인 인구가 43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성인 두명 중 한 명은 ‘고신용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국내 성인 인구의 과반이 신용점수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가운데, ‘신용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KCB는 840~899점을 ‘준(準)고신용자’로, 770~839점을 ‘중신용자’로, 그 이하는 ‘저신용



케데현 ‘골든’, 美그램미 수상… K팝 새역사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현) OST ‘골든’의 이재(EJAE, 가운데)와 프로듀싱팀이 1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68회 그램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상을 받은 후 프레스룸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L4면> /AP·뉴시스

자’로 구분한다. 작년 하반기 신용평가 점수 800점 이하는 2122만명, 750점 이하는 1608만명이다. 국민의 42.4%는 중·저신용자로, 32%는 ‘저신용자’로 분류된 것.

신용점수는 대출·상환 이력,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 등을 활용해 매겨진다. 금융거래 이력이 없

는 사회초년생의 신용점수는 600~700점 전후로,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 년간의 안정적인 금융거래 이력이 쌓여야 한다. 청년을 비롯해 가정주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금융 이력이 쌓이기 어려운 ‘신파일러(Thin filer)’들은 중·저신용자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신파일러’가 12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주산했다.

◆ 중·저신용 이자비용 ‘3배’

국민 45%는 고신용자로, 32%는 저신용자로 구분되며 신용평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금융비용 격차도 커졌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이제 그만”

李 대통령, 野 직격 SNS 메시지



당 정부의 발목을 잡아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반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주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하며 정권을 흔드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실효적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보유세와 관련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KRX, 코스피 5.26% 하락 4949.67 외국인·기관 5.9조 매도 ‘사이드카’

코스피 지수 5000이 무너지며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이 연출됐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6%(274.69포인트) 하락한 4949.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한 때 4933.58까지 밀려났다.

오후에는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 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 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2면>

개미들은 하락장을 틈타 ‘줍줍’에 나섰다.

이날 하루 순매수 규모는 5조7000억 원에 달했다. 하루 순매수로는 사상 최대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3000억 원, 2조6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도 4.44% 떨어진 1098.36으로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가 1.25% 하락했고, 대만 가권지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도 모두 하락했다.

미국의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의 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폐과적 성향에 따라 지명 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워시 쇼크’에 따라 지난 30일 글로벌 자산 시장은 대거 폭락했다. 이날 금은 11%, 은은 31% 폭락했다. 비트코인 또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만에 8만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지수는 0.36%, 나스닥 종합과 S&P 500지수는 각각 0.94%, 0.43% 하락 마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8원 오른 1464.3 원에 오전장을 마감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

▲ 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4.5% ‘잘못한다’ 40.7%

▲ 與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첫 출마 선언

/사진 뉴시스

▲ 김동연 “부동산 대책 반발?…국가 차원 문제에 협조해야”

▲ 이준석 “李정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 5월 9일까지 집 파실건가…시장이 지켜볼 것”



▲ 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4.5% ‘잘못한다’ 40.7%

▲ 與 전현희 서울시장 출마… “오세훈 전시행정 D DP 해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원관희 기자 wkh@

“263p 오르내려, 살 떨리는 하루… ‘비이성적 과열’ 경계를”

오천피 붕괴

개인, 하루동안 5.7조 순매수
현대차·삼성·SK 등에 편중
시장 1990년대 IT버블과 닮아
“당시 보다는 안정” 분석도

4933.58과 5196.71.
2일 코스피 지수가 그린 궤적이다. 장 중 263.13포인트를 오르내리며 투자자에게 살 떨리는 하루를 선사했다. 전 거래일보다 101.7포인트(1.95%)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한 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하루 5조7000억원 넘게 산 개인과 외국인(3조3000억원 순매도)의 치열한 공방 속 코스피는 결국 4949.67까지 밀려났다.

최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운 시장을 지배한 건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비이성적 과열’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 과도한 주가 급등세에 대한 경고를 던지며 썼던 말이기도 하다.

◆과열과 시장 편중 우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6조원 가까이 산 개인은 올해 누적 순매수액이 10조원(10조125억원)에 달한다. 올해 외국인(6조8000억원)과 기관(5조9000억원)의 대규모 매도에도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



장중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급락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274.69 포인트(5.26%) 내린 4949.76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는 셈이다.

시장 곳곳에서는 과열과 편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10조원 가까이 돈을 쏟아부은 동학개미의 ‘편식’은 심했다. 현대차를 5조7000억원어치 사들였고, 삼성전자를 5조5000억원어치 쓸어담았다. SK하이닉스 주식도 4조원에 달했다. 개인 매수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블랙 먼데이’ 상황에서도 각각 ‘15만전자’(15만400원), ‘80만닉스’(83만원)에서 벼렸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이어져 그동안 지수가 급등했지만, 상승장을 틈타 외국인과 기관이 차의 실현에 나서는 모양새”라며 “최근 급등세가 대형주 내 소수 종목에 집중된 만큼 상승 피로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 전체로 보면 주가가 오른 종목은 116개, 내린

종목은 799개로 일부 종목으로 쏠린 ‘그들만의 리그’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는 역대급 ‘불장’에서 단기 과열종목도 함께 크게 늘었다. 지난달(1월 2~30일) 국내 증시에서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41개로 집계됐다.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연료가 너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대기자금인 투자자에 턱금은 지난달 30일 106조325억원에 이른다. 호시탐탐 증시의 상승세에 편승할 시기를 기습하며 증시 입성을 노리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꿈쩍 않던 연금자산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포털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은행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60조5580억원을 기

록했다. 전년보다 15.4% 늘었다. 같은 기간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31조5026억원을 달성했다. 2024년 말 103조9257억원보다 26.5% 성장했다. 최근엔 빛내서 투자하는 ‘빛투’ 움직임 까지 가세 중이다. 현재 신용거래융자는 30조2779억원에 달한다.

◆“닷컴 버블” 떠오른다”vs “펀더멘탈 탄탄”

일각에서는 과열된 시장의 움직임이 IT 버블로 가득했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시장과 닮은꼴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시 미국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IT 열풍이 바다 건너 한국으로 넘어오며 시장이 과열됐다. 비이성적 과열이란 경고가 나온 시기다. 이후 거품이 꺼지며 투자자와 시장은 한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날 증시 폭락에도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지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마지막 기회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나 “정말 ‘20만전자’와 ‘100만닉스’로 갈 수 있느냐”고 묻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IT 버블의 충격이 훤플고 간 2000년대 초반과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격의 개미가 투자하는 분야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IT 버블 당시엔 미래에 대한 기대가치만 있지 실적이 없는 곳에 투자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기존의 캐시

플로(현금흐름)가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등 미래 한국 사회 산업을 선도 할 미래 기술을 가진 종목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당시보다는 안정성을 확보한 투자라는 말이다.

버블에 대한 시각차는 있지만, 짧은 시간 과도한 상승세를 보인 만큼 언제든 출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석준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최근 2026년 말 코스피 목표치를 4500에서 5200으로 올려 잡으면서 “코스피는 단기 조정(breather)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환 및 금리 흐름 같은 금융 시장 관점에서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잇따른 주가·심리·수급 과열로 인해 미반영 악재에 민감하고 선반영 호재에 둔감하게 시장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며 “설 연휴 공백 부담 역시 시장의 숨 고르기 전환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31일(현지시간) 연준 의장 후보자로 지명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해 “‘매파’(통화긴축 선호)가 아닌 ‘정치적 동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발 AI 과잉 투자 우려도 커졌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1면 ‘신용 인플레, 중·저’서 계속

李 대통령, 재경부 2차관에 허장 임명… 환율 관리 책임

우주항공청장 오태석 등 인사



개발협력과장과 대외경제총괄과장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보좌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경제공사를 지냈다. 이후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을 거쳐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를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경제 및 대외정책 전문가로 국제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경제와 국고를 관리하는 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낙점됐다. 1968년 전북 순창 출신인 그는 행정고시(35회)로 과학기술처에 입직한 이래 30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과학 기술 행정 관료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 1차관 시절 누리호 발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우주항공기술사업 물론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평가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과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는 각각 김좌관 부산기틀릭대 석좌교수, 가수 김원중씨를 각각 발탁했다.

/서예진 기자 syj@

은행 15곳 신용평가 평균점수 924점 달해 고신용 대출도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가 비용 부담이 큰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나고 있어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가운데 15곳은 개인 신용대출 평가 시 KCB 신용평가 점수를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국내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은 924점이다. ‘고신용자’에 해당하는 900점 이상 구간에서도 대출 승인을 확신할 수 없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신규 취급 대출 금리의 평균은 연 5.22%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고신용자에게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의 금융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밀려났다. 통상 저축은행 대출은 신용점수 600~650점, 신용카드대출(카드론)은 700점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3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12월 신규 공급한 대출의 금리 평균은 연 15.14%다. 같은 기간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3.93%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들은 금융 거래 이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대출 대비 3배 가까이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제2금융권 대출 이용 시에는 신용점수 하락폭도 큰 만큼, 비용이 보다 저렴한 제1금융권 상품 이용은 더 어려워진다.

/안승진 기자 asj1231@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두달째 감소

주담대 610조… 전월비 1.5조 ↓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와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들며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65조8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과 비교해 1조865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4653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다.

이처럼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610조1245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1조4836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를 나타낸 건 지난 2024년 3월(-4494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감소폭은 지난 2023년 4월(-2조2493억원) 이후 가장 컸다.

앞서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여 왔다.

여기에 주택 매매 거래가 위축되면서 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10월 2만5000호에서 11월 1만8000호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같은 기간 8만5000호에서 3만3000호로 감소했다.

신용대출도 전월말 대비 2229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5961억원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정부 규제로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미 많은 고객들이 대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에 미리 받아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올해도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량 관리가 경상성장률보다 더 올라가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낮게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반도체·ICT 기반 양자기술 혁신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청사진

과기부 양자종합계획

2028년 원천기술 자립화 목표
산업 연계형 '양자 클러스터' 지정
삼성 등 주요기업 기술협의체 운영

정부가 반도체와 ICT 경쟁력을 빌판으로 양자기술 분야에서 단숨에 격차를 좁히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8년 국산 양자컴퓨터, 2035년 퀀텀칩 세계 1위를 목표로 연구·산업·안보를 잇는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양자종합계획을 선포하며 2028년까지 완전한 국산 기술로 구현된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35년에는 세계 1위의 퀀텀칩 제조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이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후발 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활용해 단숨에 전세를 뒤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양자기술은 0과 1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비트(Bit)와 달리, 양자컴퓨터의 최소 단위인 큐비트(Qubit)는 '중첩' 원리를 통해 0과 1을 동시에 표현한다. 이 특성 덕분에 연산능력은 큐비트가 늘어 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천만년 동안 풀어야 할 난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현재 미국이 전체 특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중국과 유럽이 그 뒤를 쫓는 상황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7% 수준에 불



배경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양자종합계획 발표 및 양자기술 협의체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2028년까지 냉동기, 측정장치, 초저온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100% 국산화한 양자컴퓨터를 선보여 원천기술의 자립화를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았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연구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핵심 부품을 100% 국산화한 '풀스택 양자컴퓨터'를 독자 개발하고, 자동차·제약 등 주력 산업의 난제를 양자와 AI 결합으로 해결하는 실전 사례 발굴에 집중한다. 특히 국방·금융·양자암호통신망과 초정밀 양자센서를 조기 상용화해 안보와 의료 혁신을 동시에 달성을 계획이다.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 특화 산업 연계형 '양자 클러스터' 5곳을 지정해 양자 전환(QX) 거점으로 삼는다. 또한 미국 아이온큐(IonQ)와 협력해 국내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슈퍼컴퓨터와 연동된 하이브리드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 전문 인력 1만 명을 양성하고 30년 장기

연구 체계를 도입하며, 삼성·현대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협의체'를 통해 초기 시장 창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해 양자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입법부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개발 지원 위주였던 기존 법안을 넘어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 공급망 자립화, 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주요 인프라의 암호 체계를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특례와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며 "연구개발 지원에 머물던 기존 법 체계를 넘어, 인공지능·보안·공급망·규제·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김스낵 등 '수출 효자' 부상 원물 급등 '물가 부담' 가중

김 수출실적 사상최대

간편식 등 고부가가치 가공품 주효
국내 재고바닥… 1속당 1만원 거래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갈아치우며 K-푸드의 핵심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스낵과 간편식 등 고부가가치 가공품을 앞세운 해외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외형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원물 가격 급등으로 내수 시장의 부담이 커지는 양면적 풍경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마른김 가격이 3년째 상승세를 보이며 한 장당 150를 넘어섰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 김(종류) 평균 소매가격은 1월 하순 기준 10장당 1515원으로 집계됐다.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 진열된 김. /뉴스

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마른김 도매가격은 2023년까지만 해도 1속(100장)당 5000~6000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 수출 붐과 함께 원물 확보 경쟁이 벌어지며 같은 해 12월에는 1만2000원대까지 치솟았다. 현재도 1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김 수출량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국내 재고가 바닥난 것이 원인이다. 최근 수출 단가 급등으로 일부 국가에서 수출 물량이 줄었지만, 이미 소진된 재고 텃에 내수로 물량이 풀리지 않으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KMI는 올해 김 생산량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유통업계는 마른김 가격이 1만원대로 굳어진 만큼 조미김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이 K-푸드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한 성과"라면서도 "수출 확대와 내수 물가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김 산업의 지속 성장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올설에도 정관장으로 말해요



설사은행사

2026.01.23 ~ 02.18

혜택 1 전 품목 10% 할인

* 뿌리삼[천삼] 등 일부 품목 제외

혜택 2 신규 가입 시, 천녹통 3포 증정

* 마케팅 수신 동의 필수

혜택 3 삼성카드 LINK 20/50/100만원 이상 결제 시, 1/3/7만원 청구할인

* 로드샵 및 정몰 한정, 1인 1회, 법인/체크/선불/충전기프트카드 제외

JUNG KWAN JANG 정관장

석유화학업계, 구조재편·스페셜티 강화에도 실적개선 '난항'

LG화학, 지난해 석유화학 부진에 영업손실 3560억… 적자 폭 확대 반도체용 세정제 등 스페셜티 속도 금호석유화학, 영업익 전년比 0.4% ↓ 합성고무·수지 사업서 대규모 적자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도 적자 전망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둔화가 겹치면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구조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실적 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업황 회복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기업들이 올해 돌파구로 내세우고 있는 스페셜티(고부가 가치 제품)의 시장 여건도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1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자회사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1조3461억원이 반영된 결과로 이를 제외하면 165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석유화학 등 핵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심 사업 부문의 부진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지난해 석유화학 부문 영업손실은 3560억원으로 전년(1040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LG화학은 올해 실적 목표 역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매출 목표는 23조원으로, 지난해 수준(23조8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반도체용 세정제(IPA), 전기차용 고성능 합성고무(SSBR) 등을 중심으로 스페셜티 소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설비투자(CAPEX)는 1조7000억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향후 2~3년간 재무 개선을 우선해 연간 투자 규모를 2조원 이하로 관

리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도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718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4.8% 급감한 15억원에 그쳤다.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합성고무·수지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합성고무 수요둔화와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올해 스페셜티 사업 강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주요 석유화학업체들 역시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실적을 공개하는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연간 73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2022년 이후 4년 연속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5일 실적 발표를 앞둔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15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돼,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중국발 저가 물량 유입과 글로벌 경기둔화가 이어지며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올해 업황 전망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에서 신·증설이 지속되는 만큼 시황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스페셜티를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 역시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제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페셜티 산업은 1~2년 안에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범용 제품 중심의 대량 생산 구조가 점차 다품종·소량 생산 체제로 옮겨가는 흐름 속에서 산업 전환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원간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산업부, '게임체인저' 소부장 생태계 키운다

〈소재·부품·장비〉

오늘부터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 생태계완성형·지역주도형 중점 발굴 수요기업-소부장 기업 함께 혁신 추진

산업통상부가 '게임체인저'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는 3일부터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는 새롭게 도

입되는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중점 발굴한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된 대표적인 소부장 지원 제도로, 그간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과제 74건을 발굴·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희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파우치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품목의 기술자립을 앞당기고,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는 양산 공장 설립도 이끌어냈다.

다만 최근 산업 경쟁이 국가 간 경쟁

으로 격화되면서 기존의 '모방·주격' 중심, 단일 품목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차세대 품목을 선점하고 생태계 단위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게임체인저 품목을 겨냥한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최종 수요기업이 주도해 게임체인저 품목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 전반과 함께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수요기업은 단순 과제 참여를 넘어 소부장 생

태계 설계자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수요기업에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R&D 총괄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R&D 참여기업의 자율적 선택·변경 권한 ▲대형 R&D 자금 및 정책금 융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을 축으로 한 소부장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주도형 협력모델'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소부장 특화단지 전용 지원 유형으로, ▲단일 지역형 ▲지역 간 협력형 두 가지로 나누어 운영된다.

단일 지역형은 특화단지 내 공장 신설·증축 등 설비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지방정부와 지역 내 앵커기업이 소부장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해 패키지 지원을 약속하면, 중앙정부가 확약 내용과 생태계 기여도를 검토해 협력모델로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R&D와 투자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등이 연계 지원된다.

지역 간 협력형은 서로 다른 특화단지에 위치한 수요·공급기업 간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 협력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단일 지역의 성과가 권역을 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돋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고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달 전국 아파트 1만4222세대 분양… 공급회복 기대감

일반분양 6091세대… 전년比 2배 ↑

수도권 9227, 지방 4995세대 집계

아파트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4222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 역시 6091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가량 많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됐던 영향이 반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분양 일정은 시장 상황과 사업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실제 분양 실적은 변동 가능성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분양시장은 계획 대비 실적률이 있다"며 "여기에 금융·규제 환경에 대한 점검이 더해지면서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뒤로 조정됐고, 그 결과 계획 대비 실적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2월 분양 예정 물량은 수도권 9227세대, 지방 4995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5204세대, 서울 4023세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며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

이 있다"며 "여기에 금융·규제 환경에 대한 점검이 더해지면서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뒤로 조정됐고, 그 결과 계획 대비 실적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장원자이더스카이(519세대), 경북 경산시 상방동 상방공원호반씨밋1단지(1004세대),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해링턴플레이스리비(209세대),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하늘채루미엘(669세대), 전남 여수시 신기동 편한세상여수글렌즈(1365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분양 관계자는 "연초에는 건설사들이 마수걸이 사업장 선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1호]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신청 연장 공고

『민법 및 소유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분양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통지되는 분양신청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면적

1)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3)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146번지 일원 4)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7,579.1m²

2. 건축신의 내용(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건축신의 주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지하 4층 ~ 지상 14층) 2) 대지면적 : 7,579.1m²(실사용 면적)

3) 건축면적 : 2,228,577.2m² 4) 건축연면적 : 3,251,589.3m² 5) 건폐율 : 29.4%

6) 용적률 : 234.1% 7) 높이에 관한 계획 : 지하 4층 ~ 지상 14층 8)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미터 이격

9) 공동이용시설 : 1939.3238m²(주민동통시설)

3. 분양신청 연장 기간 : 2026년 2월 10일(화)까지(7월간) / 10:00 ~ 17:00

4. 분양신청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7, 2층 (방화동로 69-1, 2층)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임대주택 제외)

구분	유형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 공용	공급면적	비고
분양주택	40	5	40,5254m ²	15,6019m ²	56,1273m ²	16,9785평형
	49	19	49,5995m ²	19,4601m ²	69,0596m ²	20,8905평형
	59A	14	59,8678m ²	22,7446m ²	82,6124m ²	24,9902평형
	59B	6	59,7337m ²	23,8131m ²	83,5468m ²	25,2729평형
	59C	14	59,9767m ²	22,6336m ²	82,6133m ²	24,9905평형
	74A	28	74,9955m ²	27,7244m ²	102,7199m ²	31,0727평형
	74B	8	74,9675m ²	28,4067m ²	103,3742m ²	31,2706평형
	84A	26	84,8718m ²	30,7954m ²	115,6672m ²	34,9893평형
	84B	14	84,9040m ²	31,3319m ²	116,2723m ²	35,1723평형
	108A	9	108,4649m ²	40,2856m ²	148,7505m ²	44,9970평형
근린	108B	12	108,6375m ²	41,7277m ²	150,3652m ²	45,4854평형
	합계	155세대	11,556,5232m ²	4,332,1359m ²	15,888,6591m ²	-
	유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비고
1층	135,1418m ²	30,9300m ²	250,8317m ²	416,9035m ²		
	합계	135,1418m ²	30,9300m ²	250,8317m ² </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민주당, '합당 파열음' 수면 위로…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중앙위원회서 당헌 개정안 표결
최고위원들, 조혁당 합당 반대
정청래 “당원들 뜻대로 하겠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를 계기로 한 동안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 비판 발언이 2일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다음날(3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특히 정청래 지도부에서 1인1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을 지난해 한 차례 추진했다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어,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재평가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가 1인 1표이듯, 당원 투표도 1인 1표가 헌법이 명령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이라며 “1인 1표제는 당원의 85.3%가 찬성하고 있다. 당원의 뜻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1인1표제 당헌 개정과 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

국혁신당 합당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정 대표를 거론하며 소모적인 합당 절차를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3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분출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다.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김건희 1심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 선 민생개혁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면 답답해 한다”며 “부동산, 설탕부담금 등 민생 중심 정책 메시지를 (대통령이) 쉽 없이 내는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

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는 거 아닌지 무겁고 식은 땀이다 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되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합당은 정 대표 개인의 결정이었다. 최고위 논의 없이 알방 통보와 전달만 있었다”며 “심한 자고감을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있다.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합당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가 시작된다”며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춰 멈춰겠다”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시던 시절이 기억난다. 의총이고 최고위고 공개적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나.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며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들의 모든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다.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께 제안을 했다. 이제 공은 당원께 넘어갔다”고 정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더민초의 대표인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합당 논의 즉각 중단’에 의견을 모으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힘·서울시 “민간 중심 공급 전략 필요”

공공주도 주택만으로는 물량 한계
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호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부동산 정책 협의회에서 정부의 1·2·9 대책을 두고 공공주도 주택 공급만으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도심 핵심 입지에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대책을 지난달 29일 발표한 바 있다. 규모로 보면 판교 신도시 2개와 맞먹는 물량으로 서울에만 3만2000호를 공급한다.

이날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은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건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시행 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개발기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원과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급 기부채납도 허용하고 재건축 조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

가 나오는 것을 고려 LTV(담보인정비율) 70%로 확대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이주를 독려하고자 하며,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하여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 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제안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인허가 정책의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

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세계 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김민석 “국정 전력투구… 총리 업무 전념”

지방선거 불출마 우회적으로 밝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의 이완과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 성공에 집중하고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6·3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두고 다양한 정치적 주제와 질문에 접하고 한다”며 “다만, 꼭 필요할 때는 정치발전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밝히고,

가짜뉴스나 잘못된 보도에는 엄격히 대응하며 총리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와 관련해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한) 쿠팡 압박이 주된 배경이라는 주장과 달리 관세 협상 합의의 이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미국 측의 불만 또는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관세 대응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관련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에서 저뿐만 아니라 통상을 협상하는 모든 라인이 사전에 알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메시지였다는 것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추정하기론 하워드 러트너 상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청년
창업
사관학교

유니콘으로 가는 첫걸음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
청년, 스타트업의 꿈을 지원합니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2026 입교생 모집

청년창업사관학교 16기

모집기간 2026년 1월 30일(금) ~ 2월 13일(금) 16:00까지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인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함

모집규모 650명

지원내용 ①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원
② 5T(Technology) 프로그램
(T-멘토링, T-실험실, T-사업화, T-마케팅, T-싸포트)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http://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지원 포털) www.k-startup.go.kr
*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입교를 희망하는 지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글로벌창업사관학교 7기

모집기간 2026년 1월 30일(금) ~ 2월 13일(금) 16:00까지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인 대표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
②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청창사 및 글창사('20-'23) 졸업기업*

* 졸업기업은 분야 및 연령제한 없음(글창사 '24-'25 졸업기업 신청 제한)

모집규모 100명

지원내용 ① 사업화 지원금 최대 2억원
② 글로벌 5G 프로그램
(G-멘토링, G-Lab, G-캠프, G-라운드, G-싸포트)

문의처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수도권 02-2130-1462~68
☎ 호남권 062-250-3032, 3042
☎ 영남권 053-819-5054, 5056, 5053
K-스타트업(창업지원 포털) www.k-startup.go.kr

딥테크창업사관학교 1기

모집기간 2026년 1월 30일(금) ~ 2월 13일(금) 16:00까지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인 대표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딥테크 성장성이 높은 초격차 신산업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

② 삼총기술 삼업화를 희망하는 청창사 및 글창사('20-'23) 졸업기업*

* 졸업기업은 분야 및 연령제한 없음(글창사 '24-'25 졸업기업 신청 제한)

모집규모 200명

지원내용 ① 사업화 지원금 최대 2억원
② 기술상업화 5D 프로그램
(D-멘토링, D-실험실, D-상업화, D-라운드, D-싸포트)

문의처 딥테크창업사관학교 ☎ 수도권 02-2130-1432~6, 1426~9
☎ 호남권 062-250-3039, 3043, 3031
☎ 영남권 053-819-5058, 5055, 5057, 5053
K-스타트업(창업지원 포털) www.k-startup.go.kr



중소벤처기업부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계약 CSM 경쟁력·보유계약 수익구조 개선 '자본력 최우선'

2026 보험, 위기와 기회

현대해상

작년 3분기 지급여력 비율 179.8% 상품 개발역량·프로세스 고도화 등 판매채널 생산성 '레벨업'도 과제

현대해상이 2026년 경영방침으로 '자본력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익 중심 사업구조 확립'을 내걸었다. 지난 해 자동차 손해율 상승과 실손보험 손해액 증가 등 본업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자본과 수익 체력을 동시에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재정렬하겠다는 구상이다.

◆ 자본지표 개선, 본업 부담 지속

현대해상은 2025년 3분기 기준 K-IC S(지급여력) 비율이 179.8%로 2024년 말 (157.0%) 대비 개선됐다. 신계약CSM(보험계약마진) 배수도 상승했다. 자본지표 측면의 개선 흐름이 나타난 것. 다만 자동차 손해율 상승과 실손보험 손해액 증가로 아쉬움이 있는 한 해였다는 평가다.

지난해 실적은 본업 변동성을 드러냈



현대해상 사옥과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네 갈래다. 우선 수익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이다. 장기보험은 신계약CSM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보유계약 수익구조를 개선해 계약의 질을 끌어 올리고, 자동차·일반보험은 이의구조를 최적화 한다.

보험 본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신상품 개발 역량과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마케팅 정책과 DB 전략을 선진화한다. 판매채널 생산성 '레벨업'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언더라이팅(U/W)과 보상(클레임) 시스템을 효율화해 손해율 관리의 정밀도를 높이고, 상품·채널·심사·보상 전 단계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본업 경쟁력'은 상품·채널·리스크관리의 동시 개선으로 압축된다.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 정책, DB 운영을 정교화해 유입 단계의 효율을 높이고, 언더라이팅과 보상 체계를 함께 손보며 손해율 관리의 정밀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뜻이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전략적 자산배분과 투자역량 제고를 통해 시장 변동성 환경에서도 손익과 자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성과지향적 경영관리 체계 확립'과

'기본에 충실했던 업무 문화 실천'도 나선다. 목표 설정과 성과평가 시스템을 합리화하고, 구성원 역량 강화와 성과보상 체계를 정비해 실행력을 높인다. 소비자보호와 윤리경영 실행력을 높이고, 고객·현장 지향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방식 선진화를 꾀할 방침이다.

현대해상이 기본으로 둑은 소비자보호·윤리경영·프로세스 개선·디지털 활용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실행 기반으로 제시됐다. 판매와 보상, 내부 운영 전 과정에서 고객·현장 지향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 방식을 선진화함으로써, 수익 중심 구조개선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대해상은 2026년 경영방침을 통해 '자본력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수익 중심 체질을 확립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는 신년사에서 "자본력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힘써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사적 실행을 주문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해외 결제 10% ↓, 최저 유가로 주유해요"

설 연휴, 신용카드 혜택

NH농협, 인천공항 무료 교통서비스
현대카드, GS칼텍스 주유소 최저유가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여행 및 교통 서비스 중심의 카드사 혜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명절 특수를 겨냥해 생활밀착형 혜택 강화와 프리미엄 카드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두고 카드사들이 항공권·교통·숙박시설 등 수요에 대비해 새로운 카드를 출시하는가 하면 관련 혜택 강화에 나섰다.

실제 명절 연휴를 중심으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온라인 쇼핑 내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5조90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조4280억원) 대비 8.7% 증가한 규모다.

대표적인 것이 NH농협카드의 '올바른 트래블 카드'다. 올바른 트래블 카드

는 전월 실적 충족 시 가맹점 7% 할인 및 인천공항 무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국내 면세점,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에서 5% 청구할인, 국내 카페와 베이커리 영역에서 10% 할인 혜택이 있다.

NH농협카드는 오는 4월 13일까지 해당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 특정 국가 즉시 할인 이벤트도 실시한다. 중국·일본·미국·베트남 등 총 7개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10%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회당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귀성길 장거리 운전 시 주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있다.

현대카드는 최근 GS칼텍스와 손잡고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새롭게 출시했다. 에너지플러스현대카드 이용 고객은 전국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하든 인근 지역 내 최저 유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최저가는 주유 당일 반경 5km 내 GS

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 등의 정유사 및 알뜰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동일 유종 간 가격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GS칼텍스 주유 간편 결제 서비스인 에너지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주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긴 연휴를 맞아 프리미엄 여가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Sh수협은행의 '더 아우름 신용카드'를 주목할 만 하다. 더 아우름 신용카드는 프리미엄 혜택 특화 상품으로, 연 1회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호텔 다이닝, 백화점, 신라면세점, 골프 업종 등 4종 중 1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건강, 생활, 쇼핑, 여행 등 옵션 페키지 4개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업종에 대해 5%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외 겸용 선택 시에는 국내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및 국내 공항·호텔 빌레파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s4187@



정상혁 신한은행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1월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디와이피(주) 화성 공장을 방문해 디와이피(주) 홍순겸 회장(앞줄 왼쪽)과 디와이피(주) 양준규 사장(앞줄 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 '생산적 금융' 확산

화성 디와이피(주) 부품기업 방문

"산업 특성 반영 '맞춤형 금융' 지원"

신한은행은 정상혁 은행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디와이피(주)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과 향후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디와이피(주)는 1967년 '동양정공사'로 설립된 내연기관용 피스톤 제조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대표적인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2024년 자회사 '디와이피에코'를 설립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 제조 등 친환경차 산업 영역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 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 역시 신한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연

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명규 신한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대출분과장(신한은행 여신그룹장)이 함께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자금 수요를 확인하고 생산 설비 확대 및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금융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상혁 은행장은 현장에서 디와이피(주) 창업주인 홍순겸 회장과 양준규 사장을 만나, 기존 핵심 산업 분야의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 계획과 친환경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혁신 산업

확장 전략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또한 향후 투자와 성장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과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한은행의 금융 역량을 적극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상혁 은행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자금 공급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GS건설, 올해 도시정비 수주목표 8조

"수도권·지방 대도시 위주 선별 수주"

GS건설이 올해 수주 목표로 8조원을 제시했다. 10여년 만에 최대치다.

GS건설은 2일 올해 도시정비사업에 8조원의 수주 목표를 밝혔다. 업계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던 지난 2015년 8조810억원에 버금가는 수치다.

GS건설은 코로나19, 전쟁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도시

정비사업이 급격히 위축됐던 2023년 수주액이 1조 5878억원에 그친 이후 2024년 3조 1089억원, 2025년 6조 3461억원 등으로 매년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 위주로 선별 수주한 것이 특징"이라며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평가받는 GS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 지난 2024년 리브랜딩을 통해 새

/안상미 기자 smahn1@

한화오션, 퓨어장관 현장 점검... 잠수함사업 수주 '청신호'

(캐나다 조달정책 책임자)

캐나다 정부·기업 관계자 30명 방문
김희철 대표 등 주요 경영진 직접 안내
현지기업 산업협력 방안 상세히 설명

한화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 P) 수주전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캐나다 측 조달 책임자인 스티븐 퓨어 특임장관이 거제를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다.

한화오션은 퓨어 장관이 캐나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거제사업장 내 조립공장을 둘러보고, 용접 로봇을 활용한 생산자동화 설비 등을 살펴봤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온타리오조선소, 어빙조선소, 데이비, 시스팬 조선소 등 캐나다 주요 대형 조선소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또 퓨어 장관은 시운전 중인 장영실함에 승함해 잠수함의 성능과 내부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 한화오션 주요 경영진과 정부 인사들이 직접 장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국방부 이두희 차관(왼쪽 일곱번째),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왼쪽 여섯번째)와 함께 캐나다 CPS P 사업에 제안한 장보고-III 배치-II 선도함인 장영실함을 돌아봤다.

/한화오션

영실함 안내를 맡았다.

퓨어 장관은 승함 후 “대단한 경험이었다”며 “내부 기술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조 작업이 진행 중인 후속 잠수함 건조 현장도 둘러보며 한화오션의 잠수함 생산 역량과 첨단 제조 기술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퓨어 장관과 동행한 테드 커크페트릭 온타리오조선소 부사장은 “한화오션 거

제 조선소에서 확인한 인상적인 역량과 실력을 바탕으로 온타리오조선소의 시설과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 프랑수아 세갱 어빙조선소 부사장은 “이번 한화오션 방문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성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

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퓨어 장관은 캐나다 정부의 국방 조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최고 책임자로, CPS P와 같은 대형 사업에서 전략적 필요성과 산업 참여, 동맹 협력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캐나다 정부가 군사 조달 체계를 전면 개편·가속화하기 위해 신설한 국방투자청을 관리·감독하며 CPS P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날 한화오션은 퓨어 장관에게 CPS P와 관련한 캐나다 현지 기업들과의 산업 협력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화와 한국이 캐나다의 ‘글로벌 경제·안보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앞서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CPS P 사업 수주를 위해 캐나다 철강·AI·우주 분야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한화오션은 캐나다 기업들과 10여 건 이상의 MOU를 맺으며 캐나다 정부의 ‘바이 캐나다인(Buy Canadian)’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이번 퓨어 장관의 방문은 한화오션이 제안한 CPS P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이자 확인 과정으로 본다”며 “캐나다 해군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캐나다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신뢰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유해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철강업계, 전방위 실적압박... '빅3' 격차 커져

포스코·현대제철 선방, 동국제강 부진
탈탄소 전환 등 사업 체질개선 중요해져

철강 업황 부진 속 국내 철강 빅3의 지난해 실적은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았지만, 방어력에서는 체력 차이가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원가 절감과 고부가 비중 확대로 수익성을 방어한 기업이 있는 반면, 포트폴리오와 시장 대응 구조에 따라 충격이 확대된 곳도 있었다. 업계는 올해 해외 생산 확대, 고부가 강화, 탈탄소 전환과 함께 원가 구조 개선과 신사업을 병행하는 체질 개선이 실적 반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철강부문은 별도 기준 지난해 매출 35조110억원으로 6.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조 7800억원으로 20.8% 증가했다. 현대제철도 연결 기준 매출 22조7332억원으로 2.1%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2192억원으로 37.4% 늘었다. 반면 동국제강은 매출 3조2034억원(-9.2%), 영업이익 594억원(-42.1%), 순이익 82억원(-76.4%)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업계는 지난해 실적 부진 요인으로

건설 내수 급락과 중국산 등 수입재 유입 지속을 꼽는다. 판매가격 인상은 제한된 반면 노동·에너지비 등 원가 부담이 겹치며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평가다. 보호무역 영향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됐고, 판매 수출은 지난해까지 비교적 견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스코·현대제철은 원가 절감과 다양한 포트폴리오·고부가·수출다변화로 방어했지만, 동국제강은 봉형강 매출 비중 약 70%의 내수·건설 편중에 더해 슬래브 수입 의존(한율·원자재 변동 노출)과 전기료 부담으로 충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각 사는 올해 고부가 제품 확대와 생산·조달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추진한다. 포스코는 국내 철강은 고수의 제품 중심으로 내실을 강화하고, 해외는 미국·인도 합작법인(JV) 기반 현지 완결형 생산을 추진한다. 수소화원제철 데모플랜트 착공과 광양 전기로 준공으로 탈탄소 전환도 가속한다. 현대제철은 2029년 1분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오는 3분기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착공에 나선다.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신수요 확보에 집중하고 3세대 강판

을 1분기 양산하며, 인도 푸네 스틸서비스센터(SSC)를 본격 가동한다.

동국제강은 봉형강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제품을 통한 수요처 다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D-메가빔, DK 그린바, 초극박 후판 등 고부가 제품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시장 개척 단계인 만큼 매출에 가시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후판의 핵심 원재료인 슬래브 조달도 과제로, 현재는 국내·일본 주요 메이커 중심으로 조달하되 공급 안정성과 선택지 확대를 위해 동남아·남미 등 제3국산 확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윤 철강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내수가 바닥을 짹으면서 건설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철근 가격도 오르는 흐름”이라며 “트럼프발 관세 효과 본격화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강화가 겹치는 만큼, 올해 시황은 수출이 전년 수준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좌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국제강은 고부가 제품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건설 수요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해온 기자



기아, 고성능 전기차 라인업 확대

4 GT, 준중형 전동화 SUV EV5 GT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EV3·EV4·EV9 연식 변경 모델도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

/기아

삼성전자, OLED TV·게이밍 모니터 '지싱크 호환' 인증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경험 제공

삼성전자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가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OLED TV 전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 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형 삼성 OLED(SH95, SH90, SH

85)’ TV와 ‘오디세이 G6(G61SH, G60H)’ 게이밍 모니터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화질을 구현한다”며 “완성도 높은 제품을 바탕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온수 공급이 가능하며, 이중 스테인레스 스틸 열교환기를 사용해 높은 에너지 효율과 보온성을 자랑한다.

LG전자는 최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건립되고 있는 AI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을 앞세워 북미 공조시장 공략을 가속한다. 주거용부터 산업용까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으로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EXPO 2026’에 참가해 북미 특유의 주거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냉난방 제품인 유니터리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주거용 제품으로는 유니터리 시스템의 대표 모델인 ‘유니터리 인버터 히트펌프’ 실외기 라인업을 선보인다. LG전자의 유니터리 인버터 히트펌프는 안정적 인 운전 성능을 통해 주거 공간 전반에 고밀하고 쾌적한 냉난방을 제공한다.

LG전자는 HVAC 솔루션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온수 영역까지 확장됐다. LG전자의 ‘인버터 히트펌프 온수기’는 안정적인 온수 공급과 난방 효율성으로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탱크리스 가스 온수기’는 별도의 저장 없이

상업용 시스템에 어울리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VRF 제품인 ‘LG 멀티브이 아이’는 정밀한 온도 관리와 통합 제어가 중요한 상업용 건물이나 대형 시설에서 최적의 공조 환경을 구현한다.

LG전자는 ES사업본부장 이재성 사장은 “차별화된 유니터리 시스템과 AI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 코어테크를 기반으로 한 앞선 HVAC 솔루션을 주거용·상업용·산업용 전방위로 확장해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공조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모비스, 전기차 캐즘에도 13조2000억 규모 수주 달성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대상 성과 목표 수주액比 23% 상회 수치

북미·유럽·BSA·새시모듈 공급
중·인도 등 고객사 다변화 성공도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해외 완성차 수주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하며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총 91억7000만불(한화 약 13조2000억원) 규모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목표 수주액 74억 5000만불 대비 23%를 상회한 수치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실적의 배경으로 대규모 전동화 부품 신규 수주와 고부가 가치 전장 부품 공급 확대, 중국 및 인도 등 신호시장 공략을 꼽았다. 특히 최근



현대모비스는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각종 신기술을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들이 현대모비스 차세대 콕핏시스템인 엠비克斯(M.Vics) 7.0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전동화와 모듈 부문 수주는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BSA와 새시모듈 같은 초대형 부품은 생산 및 물류 시스템에 대한 동반 투자가 수반되어 10~20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2005년 스텔란티스(당시 크라이슬러)에 새시모듈 공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부가치 전장 부품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북미 메이저 고객사로부터 차세대 휴먼마신인터페이스(HMI) 제품을 수주했으며, 한 세단 전문 브랜드에는 사운드 시스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HMI는 현대모비스가 주력 전장 품목으로 육성 중인 분야로, 현

재 다른 글로벌 고객사들과도 수주 확대를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호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서도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했다. 인도에서는 현지 브랜드의 점유율 상승에 맞춘 맞춤형 부품 공급 전략이 주효했으며, 중국에서는 로컬 전기차 브랜드에 차별화된 소싱 경쟁력을 앞세워 제동, 조향, 안전 부품 등 핵심 부품 수주를 이끌어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글로벌 수주 목표를 전년 대비 약 30% 높은 118억4000만불(한화 약 17조1000억원)로 설정하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방침이다.

조재복 현대모비스 글로벌 영업 담당 전무는 “올해도 불투명한 대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동화와 전장 등 핵심 부품 경쟁력을 앞세워 전년 실적을 뛰어넘는 수주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는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각종 신기술을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들이 현대모비스 차세대 콕핏시스템인 엠비克斯(M.Vics) 7.0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현대모비스

수년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해외 고객사로 부터의 수주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실적은 북미와 유럽의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 두 곳으로부터 따낸 대형

수주가 견인했다. 현대모비스는 각각 전동화 핵심 부품인 배터리시스템(BSA)과 새시모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보안 유지와 양산 변동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고객사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주는 지난해 전체 실

여성기업, 평균 매출·순이익 모두 늘었다

중기부 ‘지난해 여성기업 실태조사’ 평균 매출액 22.8억, 순이익 7600만원
투자·수출 평균금액도 전년보다 늘어

여성기업들이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먼파워’를 여실히 보여줬다.

2024년 기준으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여성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2억7300만원으로 전년도의 19억 7700만원보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순이익은 69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9.3% 늘었다. 전체 여성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629조5143억 3100만원, 20조9582억76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2.1%, 16.0% 증가했다.

여성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도 전년(2억800만원)보다 늘어난 2억 7500만원을 기록했다. 2023년 당시

123.1%이던 부채비율은 91.9%로 31.2%p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연구개발(R&D) 투자 평균 금액은 3억4000만원, 수출 평균 금액은 29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4.9%, 11.9% 증가했다. 국내 설비투자, 해외투자도 2023년보다 늘었다.

여성기업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228만6253명이었다. 평균 종사자 수는 8.3명으로 정규직은 7.1명(86.5%), 비정규직은 1.1명(13.5%)으로 집계됐다.

여성 기업인들이 인식하는 강점으로는 ‘섬세함(56.0%)’이, 약점으로는 ‘도전정신(3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남성 기업인보다 불리하다고 느끼는 분야 1순위는 ‘일·가정 양립 부담(15.2%)’이었다.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는 ▲세제지원(37.2%) ▲자금지원(29.1%) ▲인력지원(14.5%) ▲판로지원(14.3%) 등이 언급됐다. 정책 이용 효과 체감비율은 ‘자금지원(91.7%)’이 제일 높았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영 현황과 성장 활동, 정책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여성기업 신산업 진출을 돋기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로 여성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팸테크(FemTech)’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있는 여성 전용 창업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성장 단계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만들고 마케팅, 재무 및 금융 투자 등에 전문 교육도 확장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기준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 중 매출액 5억원 이상(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은 3억원 이상)인 27만6959곳을 대상으로 표본 5000개를 추출해 모집단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진 ‘원클릭’, 中企 수출파트너 역할 ‘톡톡’

전년比 해외배송물량 44% 성장시켜

(주)한진의 소상공인 특화 물류 서비스 ‘원클릭’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K-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수출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혔다.

한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 ‘2025년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참여 중소상공인의 해외 배송 물량을 전년 대비 44% 성장시켰다고 2일 밝혔다.

한진은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왔다. 한진 원클릭은 지난해 총 67개 중소 셀러를 대상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 시장 진

출을 위한 국제 특송을 지원하며 총 1만 3300여 건의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했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K-뷰티’ 열풍이 거센 일본 시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원클릭을 통한 일본행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2.8%나 늘어났다. 실제 큐텐 재팬(Qoo10 Japan)에 입점한 셀러 W사의 경우 한진 원클릭 글로벌의 역직구 특송 물류를 활용해 배송 경쟁력을 확보했고, 그 결과 전년 대비 주문량이 203% 이상 늘어나는 쾌거를 거뒀다.



한진 인천공항 GDC 전경.

미국 시장은 지난해 관세 이슈 등으로 치솟은 물류비가 중소셀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한진은 합리적인 운임 체계를 유지하며 셀러가 젊어져야 할 비용 부담을 덜어냈다. 이를 통해 미국 진출에 성공한 수제화 브랜드 J사는 전년 대비 물동량이 62% 이상 늘었다. 해당 업체는 현재 늘어난 현지 수요에 힘입어 단순 특송을 넘어 한진의 역직구 풀필먼트 서비스 도입까지 논의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푸드 40억, 뷰티 30억 실적 기록

홈앤쇼핑이 K-뷰티, K-푸드를 앞세워 수출 100억원을 달성했다.

홈앤쇼핑은 지난해 뷰티·푸드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결과 수출이 100억원을 넘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K-콘텐츠 확산과 맞물려 이들 제품이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눈에 띠는 성과를 거뒀다.

카테고리별로는 K-푸드가 약 40억 원, K-뷰티가 약 30억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건강식품·간편식·기능성 화장품 등 현지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제품군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K-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홈앤쇼핑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주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총 74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오프라인 유통 연계, 마케팅 및 물류 지원 등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한 LA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4월), 인터참코리아(7월), 자카르타 프리미엄 소비재전(9월) 등 국내외 주요 박람회에 홈앤쇼핑 공동관을 조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순 판매 연계를 넘어 현지 소비자 반응 분석과 브랜드 현지화 전략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하며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K-뷰티·푸드로 수출 100억 달성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더 저렴하게”… 챗GPT vs 구글, 가격 낮춰 사용자 잡는다

구글, 저가형 AI 구독 요금제 선봬
먼저 출시된 오픈AI 보다 더 저렴
수익 보다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려

저가 요금제로 시작된 생성형 AI 경쟁이 글로벌 생태계 선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저가형 인공지능 AI 구독 요금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오픈AI를 중심으로 신흥국에서 시작된 생성형 AI 가격 경쟁이 글로벌 전선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구글은 지난 달 28일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에서 ‘AI 플러스’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AI 요금제가 제공되는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측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신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AI 플러스 요금제는 제미나이 3프로를 비롯해 영상 생성, 도구와 리서치·글쓰기 지원 기능 등을 포함한다. 구글 클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앱 화면. 생성형 AI 시장을 둘러싼 빅테크 간 경쟁이 저가 구독 요금제를 앞세워 신흥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챗GPT

라우드 200GB 저장공간도 기본 제공되며, 최대 5명까지 가족 공유가 가능하다. 국내 기준 요금은 첫 2개월간 월 5500원, 이후 월 1만1000원이다.

이는 저가형 챗GPT 구독 상품인 ‘챗GPT 고’의 월 8달러(약 1만1000원)와 비교해 초기 이용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단기간 사용자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저가형 AI 경쟁의 출발점은 오픈AI였다. 오픈AI는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월 399루피(약 6200원)에 챗GPT 고를 출시했다. 월 20달러 플러스와 월 200달러 프로 중심이던 기존 요금 체계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신흥 시장을 겨냥한 첫 보급형 상품이었다.

챗GPT 고는 무료 버전 대비 메시지와 이미지 생성, 파일 업로드 한도를 크게 늘렸고 최신 언어모델 GPT-5.2 인

스턴트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오픈AI는 이를 통해 신흥국에서 유료 사용자 절반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 실제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저가 요금제 출시 이후 유료 가입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AI 플러스를 먼저 선보이며 보급형 요금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후 인도와 멕시코, 베트남, 이집트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빠르게 확대했다. 출시 한 달 만에 70여개국에서 저가형 AI 요금제를 제공했다.

양사의 저가 전략은 신흥 시장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오픈AI는 챗GPT 고를 아시아 16개국으로 확장했고, 구글은 동남아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역을 늘렸다. 일부 국가는 현지 통화 결제를 지원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이 같은 경쟁은 글로벌 시장으로 확전됐다. 오픈AI가 이달 챗GPT 고의 전 세계 출시를 발표하자, 구글 역시 AI 플러스 제공 국가를 전 세계로 확대하며

맞불을 놨다.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의 본질이 단순 요금 인하가 아니라 생태계 선점 차원이라고 분석한다.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해 자사 AI를 일상 서비스에 고착시키고, 향후 고급 요금제와 연계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사용자 지표 경쟁도 치열하다. 오픈AI는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8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은 제미나이를 앞세워 앱 설치 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미나이 앱 신규 설치 건수는 챗GPT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AI 시장이 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빅테크들은 수익성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비용보다 시장 점유율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시기”라며 “AI 경쟁은 결국 누가 더 많은 사용자를 자사 생태계에 끌어들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정재현 “고객신뢰 회복에 현장 역할 중요”

〈SKT CEO〉

광주·대전 등 4개 지역본부 방문
현장 의견 듣고 애로사항 살펴

SK텔레콤은 지난 1월 29일부터 30일 까지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현장경영(MBWA)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경영에서 정재현 CEO는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임원·팀장과 구성원 간 담회를 진행하고, 안전·환경 점검을 병행했다.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각 지역본부 구성원들의 업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재현 CEO는 현장 방문을 통해 품질과 보안, 안전 등 기본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현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회사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정재현 SK텔레콤 CEO(가운데)가 대전 둔산사옥 구성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SKT

대전 지역 방문 일정 중에는 유통망인 PS&M 둔산본점을 찾아 대리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실제 고객 응대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는 고객과 회사를 연결하는 현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각 지역본부에서는 CEO와 구성원이 자유롭게 현안과 개선 과제에 대해 대화

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통신 설비와 데이터센터, 전송장비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정 CEO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네이버, 카페 수익화 지원… 커뮤니티 강화

활동지표 기반 보상체계 단계적 적용

네이버가 카페 창작자와 운영자를 위한 수익화 지원을 확대하며 커뮤니티 중심 플랫폼 전략에 속도를 낸다. 검색과 쇼핑에 집중됐던 기존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커뮤니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2일 네이버는 최근 카페 운영자가 콘텐츠와 멤버십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유료 멤버십과 후원 기능을 비롯해 카페 내 활동 지표를 기반으로 한 보상 체계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단순 정보 공유

공간을 넘어 창작과 소비가 이뤄지는 커뮤니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네이버는 카페를 단순 게시판이 아닌 창작자와 팬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색 노출 강화와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모바일 환경 최적화 등 트래픽 유입 구조도 함께 손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이번 행보가 크리에이터 경제 확장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로그와 포스트, 속풀에 이어 카페까지 수익화 영역에 포함시키며 창작자 생태계를 플랫폼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최빛나 기자

AI로 송금·택시 호출 '카카오 툴즈' 고도화

카카오가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를 활용해 송금과 택시 호출까지 가능한 통합형 도구를 선보이며 ‘카카오 툴즈’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앱 전략을 강화하는 행보다.

카카오는 2일 카카오톡 내 챗GPT 연동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별도의 앱 전환 없이 송금이나 모빌리티 호출 등 주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확장했다. 자연어 입력만으로 서비스 실행이 가능해지면서 사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최빛나 기자

KT SAT, 美 아르테미스 연계 사업 참여

우주 데이터 확보 예정

KT SAT(셋)이 미국 항공우주국(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에 함께 실려 발사되는 ‘K-(라드큐브) RadCube’ 사업에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아르테미스 2호는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오리온 우주선이 달 주변을 비행한 뒤 지구로 귀환하는 임무다. 한국은 국제 파트너 국가로 참여해 큐브위성 ‘K-라드큐브’를 탑재 및 발사하여, 고지구궤도 환경에서 우주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학 임무를 수행한다.

K-라드큐브는 국내 개발위성 가운데 최초로 밴앨린대를 통과해 방사선을 직접 측정하고, 방사선이 우주인과 우주용 반도체 소자·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

할 예정이다. 수집 데이터는 우주 방사선 환경 예측과 우주용 부품 설계 신뢰성 평가에 활용될 전망이다.

KTSAT은 위성 관제와 지상국 운영을 아우르는 통합 관제 및 운영을 맡는다. 텔레메트리 송수신, 위성 상태 모니터링,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기반 과학 데이터 수집 등 운용 전 과정에 참여해 우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이다.

K-라드큐브 사업은 대한민국이 우주 탐사 분야의 원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적인 프로젝트로 발사 조건과 위성 상태, 우주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성과가 좌우될 만큼 난이도가 높은 미션이다. 이에 KT SAT은 우주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미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엔드-투-엔드 통합 운용 체계를 구축했다.

/김보민 기자 kbm@

AI 풀스택, 민관 손잡고 사우디 진출

과기부-인공지능·SW산업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달 1일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 위치한 아람코 디지털 본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7개사와 아람코 디지털 간 ‘AI 풀스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아람코 디지털은 사우디 아람코의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전담 법인으로, 에너지와 제조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우디 현지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활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MOU에는 AI 반도체, 산업 특



1일(현지시간) 사우디 아람코 디지털 본사에서 열린 ‘AI 풀스택 협력’ MOU 체결식.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뒷줄 왼쪽),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앞줄 왼쪽), 모하메드 마크툼 디지털 서비스부문 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화 인공지능 모델, 대규모 언어모델(LLM) 운영 및 서비스 관리, 클라우드·AI 인프라 구축 등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참여했다. /김서현 기자

달라진 연기금 운용평가 벤치마크 코스닥 유입 '16.5조' 제한적 전망

30조 이하 대형·중소형만 적용
사회보험성·사업성 반영 시 11조
“단기간 내 비중확대 기대 어려워”

코스닥 시장에 유입되는 연기금 자금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내 연기금 운용평가의 기본 벤치마크 변경은 30조원 이하의 대형·중소형 연기금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기금의 이번 자산운용 평가 기준을 개편에 따른 코스닥 벤치마크 변경으로 적용될 추종자금은 16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성 기금의 주식비중증가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보험성, 사업성 기금의 반영은 11조원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코스피 단일 벤치마크를 사용하면 연기금의 평가기준수익률이 코스피 95%에, 코스닥 150 5%를 혼합한 지수로 변경된다. 다만 이번 벤치마크 변경의 실질적인 영향은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대형 연기금과 1조원 미만의 중소형 연기금에만 해당되면서, 국민연금과 초대형 연기금, 일부 소형 연기금 등이 제외된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연기금 운용평가의 기본 벤치마크 변경은 30조원 이하의 대형·중소형 연기금

만 적용된다”며 “시장에서 제기된 1400조원은 2025년 국내 전체 공적 연기금의 여유자금 예상액인 만큼, 주식시장 투입 가능 자금과는 괴리가 있다”고 짚었다.

우선적으로 국내 연기금은 설립 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성, 금융성, 사업성 기금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2026년 자산 운용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회보험성 기금의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의 분산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4년 기준 사회보험성 기금은 9조6000억원(15%)을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

고 연구원은 “사업성 기금은 단기 지출 성격으로 자산 배분의 구조적 변화는 어려워 보이며, 기존 금융성 기금은 높은 비중의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자산이 국내 주식형, 벤처투자를 포함한 대체투자 쪽으로 요구될 수 있다”며 “적정 자산 배분 비중은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준을 참고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나서더라도 자산 배분의 기준점은 사회보험성 기금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단기 간 내 그 이상의 비중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불어 연기금의 위탁 운용 관점에서는 액티브 펀드 특성과 코스닥 종목의 상대적인 시장 전망치(컨센서스) 부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증권사 2곳 이상의 목표주가가 제시된 코스닥 종목은 111개 수준으로, 스크린 가능 종목의

범위도 상당히 제한된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를 연기금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는 소식 자체가 지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날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3위 ETF는 모두 코스닥 지수 투자 관련 상품이 차지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상품은 ‘KODEX 코스닥150’ ETF로 2조6775억원, 다음으로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ETF를 1조5611억 원씩 순매수했다. ‘TIGER 코스닥150’ ETF도 6489억원 담았다. 일주일 동안 코스닥 지수 상승에 약 4조5000억원 넘게 베팅한 셈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주체는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며, 상당 부분은 개인 투자자의 ETF 순매수 자금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되는 구조적 특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어나 연구원은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2025년 4월 이후 현물 기준으로 누적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 주식 ETF에 대해서는 11조4000억원 수준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주식 시장에 대한 노출을 패시브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지속되는 흐름은 개인 자금이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김성환 “고객에 더 빠르고 정확한 해답 제시”

〈한국투자증권 사장〉

한투증권 ‘2026 경영전략회의’

각 사업부문 핵심과제·로드맵 논의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한국투자증권은 ‘2026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를 동안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경영전략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임원 및 부서장 240여명이 참석해 2026년 시장 환경과 전망을 점검하고, 전사 사업 계획과 사업부문 별 세부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각 사업부문



한국투자증권 2026 경영전략회의 현장에서 김성환 사장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의 핵심 과제와 실행 로드맵 구체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성환 사장은 올해 경영 키워드인 ‘Beyond Boundaries’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김 사장은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의 기준이 바뀌는 국면에서 비즈니스의 경계와 국경, 업의 경계를 넘어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회사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사장은 “우리의 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경계를 넘어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 한국투자증권의 다음 단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융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초동대응 강화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 가동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3일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과거에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들의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 등과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학습·분석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이렇게 생성한 객관적인 판단 지표를

기준으로, 사이버 정보 동향을 감시하면서 상장 종목들을 점수화해 수치가 높은 종목을 자동 탐지한다.

담당자는 AI가 탐지한 종목을 참고해 해당 종목과 관련한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밀한 분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허정윤 기자



지난 1일 경기도 화성 테니스엠파이어에서 개최된 ‘제1회 하나증권 라이벌스컵’ 시상식에서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윗줄 가운데), 이형택 이사장(윗줄 오른쪽에서 9번째), 갈상면 하나증권 ESG본부장(윗줄 오른쪽에서 10번째)이 우승 및 입상팀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 ‘제1회 라이벌스컵’ 마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꺾고 우승
새로운 비즈니스 커뮤니티 문화 제시

하나증권은 지난 1일 기업 간 테니스 대항전인 ‘제1회 하나증권 라이벌스컵’의 결승전과 시상식을 끝으로 약 3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첫 서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총 8개 그룹, 24개 주요 기업 테니스동호회가 참가해 매 주말 열띤 경기를 펼쳤다. 단순한 승패를 넘어 기업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커뮤니티 문화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망의 결승전은 준결승에서 농협

을 꺾고 올라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팀이 우승 깃발을 향한 마지막 승부를 벌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삼성전자가 제 1회 대회 우승의 영예를 안으며, 매년 우승 기록이 자수로 새겨지는 ‘라이벌스컵 방패 깃발’의 첫 주인공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 회장과 이형택 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 대표단 이사장이 참석해 시상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상금 100만 원을 놓고 펼쳐진 이벤트 경기 ‘원포인트슬램’에는 이형택 이사장이 직접 선수로 참여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으며, 최종 우승은 정원석(SK하이닉스)이 차지했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분석 알고리즘 개발

AI 기반 시세조종 혐의 구간 자동탐지

초 단위 구간도 신속히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조사 완료 사건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점검한 결과, 조사원이 발견한 모든 혐의 구간뿐만 아니라 조사원이 탐지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추가로 발견해 정확성도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구간을 식별하기 위해서 조사원이 수작업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시세조종 혐의 구간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자동 적출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에 위한 매매분석 플랫폼(VISTA)에 AI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대응해 혐의 계좌를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테스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특화 분석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혐의자의 온체인 데이터(네트워크 상 기록돼 공개되는 모든 거래 정보)와 자금 거래를 분석해 추가로 추적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추적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디지털본부 임원 신규선임

스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재직하며 스쿼드 중심의 제품 조직 전환과 신규 사업 성장을 이끌었다.

NH투자증권은 김 상무가 디지털 조직의 실행력과 대형 금융사의 안정성을 조화롭게 결합해 디지털 프로덕트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농어촌公, 투명·신뢰 기관으로… '규범준수' 국제인증 획득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경영과정 전반 투명성·공정성 강화
조직문화 관리체계로 윤리경영 기틀
규범준수 캠페인 등 체감 경영체계
김인중 사장 “국민·농어민 신뢰 지속”

한국농어촌공사가 갖춘 윤리·준법경영 체계가 세계적 수준에 준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사는 2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은 법령과 내부규정, 윤리기준 등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영시스템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사는 이번 국제 심사에서 경영과정 전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청렴·윤리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이 2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심사·인정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서를 건네받고 있다. /농어촌공사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조직문화 관리체계인 'KRC(공사의 영문 명칭) Clean Wave 1·2·3'을 도입해 윤리경영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웨이브 1(개인

의 변화) ▲웨이브 2(조직의 변화) ▲웨이브 3(모두의 변화)를 통해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규범준수 문화 내재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 ▲부패 위험 식별 및 관리체

계 강화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김 사장은 “이번 인증 취득은 공사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농어민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영 전반에서 윤리와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사는 창립 117주년을 맞아 새로운 청사진인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의

3대 축은 성장동력 재충전, 경영구조 재설계, 고객신뢰 재회복이다.

성장동력 재충전은 농어업 식량안보 강화, 미래농업 육성, 농어촌 공간 혁신, 농어촌 에너지 전환, 유역별 물 환경 개선 등 본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확장을

목표로 한다.

경영구조의 재설계는 인공지능(AI) 전환, 재무건전성 강화, 재무위험 관리,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중심으로 경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신뢰 재회복은 윤리·안전·공감 캠페인(KRC Clean Wave 1·2·3)을 비롯해 지역사회 보편적 서비스 확대, 수자원 협약·화충 활동 등을 포함한다. ESG(환경·사회·투명)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고도화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투명 경영을 선도하는 모범 기관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의명신고로 체불임금 48.7억 청산 성과

노동부, 166곳 집중 기획감독 실시
105곳서 4538명에 임금 즉시 지급

재직 중에는 문제 제기가 어려웠던 '숨어있는 임금체불'이 의명 신고를 통해 대거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의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이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 의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91.6%인 152개 사업장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150곳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8곳은 즉시 범죄인지했다.

가장 많은 위반은 임금체불이었다. 118개 사업장에서 총 4775명에게 63억 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연장·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노동' 사례(12곳)와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업장(2곳)도 포함됐다.

실제 한 음식업체는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200만원의 체불이 적발됐고, 한 호텔은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 17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에 따라 118개 사업장 중 105곳에서 4538명에게 48억7000만원이 즉시 지급됐다. 자금난으로 체불이 발생했던 병원과 제조업체의 경우 법인 자금 전용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전액 청산이 이뤄졌다.

반면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에 응하지 않은 7개 사업장은 형사조치 대상이 됐다. 한 병원은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직원 13명의 임금 4억원을 체불했고, 일부 제조업체는 수주대금 지연 등을 이유로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 위반(31곳), 근로조건 미명시·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카드태깅 기록과 임금 산정 자료를 포렌식 분석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확인한 사례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위반 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2일부터 '재직자 의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감독을 올해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라며 “숨어 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의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광양시 레미콘 7개 사업자 담합 적발

22억39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민간공사용 판매가 담합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 가담사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7개사다. 이들은 최근 시멘트와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

까지 약 2년 동안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동안 3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7개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을 원칙으로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7개사는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을 약 1400억원으로 산정해 과징금 총 22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자진시정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총 합산 156.28MW 규모로 추진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 진행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육상풍력 고정 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총 156.28MW(메가와트)의 규모로 주민들과 '바람'을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란 재생에너지자를 일정 기간 지정된 가격에 공급할 사업자를 입찰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육상풍력 입찰용량은 총 230MW 내외로 공고됐고 4개 사업이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접수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1월 하순 사업내역서 평가가 실시됐다.

년스 체계 구축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기관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기관 '자산관리팀'은 '안전경영팀'으로 확대 개편돼 근로자 안전, 근로환경 개선, 사업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2026년도 정기증원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포함됐다. 증원 인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마스터플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 부서에 집중 배치돼 정책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개편 이후 한국고용정보원은 경영·정보화·연구 분야별 3본부 34팀 체제로 운영된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기관이 AI기반 고용서비스 선도기관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설치된 육상풍력 발전기. /뉴스

기후부, '육상풍력 경쟁입찰' 사업 3개 선정

평가는 2단계로 이뤄졌으며 1차는 산업·경제효과 및 주민수용성 등 비가격 평가, 2차는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합산 156.28MW 규모의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정된 사업은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진행될 예정이다. 바람이라는 공공재 혜택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gift

설날 마중

* * *

선물 사전예약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지직송으로 **능수한우암소세트** 제품과
프리미엄 솔트에이징 육류, **프리미엄 과일**까지
명절전물세트의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트스테이션
Meat Station

Meatstation.co.kr
Tel : 02-2279-8400

하동군, 농산어촌개발사업 본격화… 면 단위 생활공간 재편

진교·고전·청암면 167억 투입
건강체육관 등 생활 인프라 조성
“농촌 활력회복 기반 만들어 갈 것”

하동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진행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며 농촌 생활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교·고전·청암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167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체육·행정·복지·안전 기능을 집약한 면 단위 복합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하동군은 지자체와 공사, 주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진교면에서는 99억 원이 투입된 ‘민다리복합센터’ 조성이 한창이다. 2026년 2월 말 완공을 목표로 내부 마감과 외부 부대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주민 빨래방 등이 들어선다. 농촌 지역에서도 도시 수준의 생활체육·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고전면 행정문화복합센터 조감도. /하동군

청암면에서는 21억 원을 들여 건강 체육관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 체육 활동 공간은 물론 산불·이상 기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소로도 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기후 위기 시대 농촌 지역에 적합한 재난 대응형 생활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 준공 예정이다.

고전면에서는 노후 면정사를 철거하고 행정·복지·주민공동이용 기능을 모은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총 47억 원이 투입되며 기초생활거

점조성사업비 21억 원과 공공청사 건립비 26억 원이 반영됐다.

부지면적 2029m², 연면적 890.66m²,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1층에는 면사무소 등 행정 기능, 2층에는 주민 화합실·동아리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실시 설계를 마치고 구청사 철거 후 본격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들은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사업지 조정 등으로 주민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면 단위 거점 복합화 모델은 시설 유지 관리 부담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 기능을 집약한 전략적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협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

이 같은 방식은 금남면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옥종면·액양면 역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등 하동군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거점을 재편하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2026년까지 계획된 사업들을 안전하고 내실 있게 마무리해 농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농촌 활력 회복 기반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부산 안전 ON’ 시범 운영

부산시는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부산 안전 ON’을 개설·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 안전 ON’은 시민들이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서비스다. 하천 수위·나풍향·풍속, 조위, 기상청 강우 정보, 산사태·취약지역 정보와 땅꺼짐 발생 현황,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정보 등을 제공한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보완과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위치도 공개

울산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업승인 위치도를 최신화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치도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군별로 구분해 제작됐다. 각 사업장의 사업주체와 위치, 규모, 세대 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해당 위치도는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건설·주택·토지)·주택허가·주택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간단히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계약심사로 예산 501억 절감

2024년 1조 3247억 규모 사업 심사

부산시는 지난해 계약 심사 제도를 통해 501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1517건, 총 1조 324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501억 원을 절감하며 3.8%의 절감률을 기록했다.

계약 심사는 사업 발주 이전에 원가 산정이 적절한지 사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고 계약 대상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1만 9297건, 14조 6210억 원을 심사해 5483억 원을 절감했다.

시는 단가 조정뿐 아니라 현장 특성을 고려한 공법 개선과 설계 변경으로 예산 절감과 시공 품질 향상을 함께 추진했다. 복합타운 등 대규모 공사에서 흙막이 공법을 개선해 53억 원(8.46%)을 절감했고, 배관 물량 신출 방



식을 바꿔 과다 계상된 자재비와 노무비를 조정했다. 또 도로 개설 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인증 제도로 발전소에 무상 처리하도록 해 3억 9000만 원을 아끼며 탄소 중립에도 기여했다. 감리 용역비도 공사비 요율 방식 대신 실비정액 기산 방식을 적용해 6건에서 4억 2000만 원을 절감했다.

박형준 시장(사진)은 “직무교육으로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도왔다. 전국 평균 절감률 2.5%를 넘는 3.8% 절감률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계약 심사를 철저히 진행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절감한 예산이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청년 취업준비 패키지 지원사업

포항시는 3일부터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덜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에서 34세 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응시료 연간 10만 원, 전문 서적 구입비 연간 5만 원, 면접 정장 대여비 연간 5만 원 등 3개 항목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해남군, ‘공룡박물관’ 새단장 나서

올해 관람객 40만 명 유치 목표

해남공룡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4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대대적인 변신에 나선다.

군은 세계 최대 규모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높여 공룡박물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입체적 관람 환경을 조성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해남공룡박물관은 ‘남해안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해남을 비롯해 여수, 보성, 화순, 고성 등 국내 화석산지 보유 시군과 연계해 역량강화 워크숍, 학

술 세미나를 연중 개최하며 공룡화석지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관람객들이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확충도 실시한다. 박물관의 첫 인상인 안내데스크와 로비, 뮤지엄샵, 휴게공간 등이 대대적으로 리뉴얼된다.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연중 계속된다. 5월 어린이 날을 전후해 해남공룡대축제가 열리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을 포함해 연간 10회의 기획전시, 거점 박물관·과학관과의 교류전시, 축제 및 명절 특별 공연 등을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hg7505@

영천시

‘희망나눔캠페인’ 역대최대 모금

영천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해 총 11억 6500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액 6억 원 대비 194%를 달성,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금 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기탁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인식과 이웃을 돋는 나눔 문화가 영천 지역사회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개인 기탁자 250여 명과 기업·단체 400여 곳 등 각계각층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며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영천(경북)=김진수 기자 k0808862@

포항 남·북 잇는 ‘해오름대교’ 개통

인근 산단 출·퇴근 이동시간 단축 전망대 통해 동해바다 일출 조망

경북도는 지난 31일 남구 송도부두에서 해오름대교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경북도의회 지역 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효자·상원 간 도로는 연장 1.36km 구간으로, 교량 사장교 395m와 접속도로 965m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 748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6월 28일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개통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울릉군, 15일부터 3일간 ‘윈터문화여행’

‘겨울에 더 빛나는 울릉’ 주제

울릉군은 겨울철 지역 문화 콘텐츠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울릉 윈터문화여행’을 오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울릉한마음회관과 나리분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겨울에 더 빛나는 울릉’을 주제로, 단순 관람형 행사가 아닌 직접 타고, 걷고, 먹고, 즐기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다. 눈내

린 섬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울릉의 자연과 일상, 이야기를 하나의 여행 코스로 엮어 운영할 계획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설국버스’가 마련된다. 울릉 일주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겨울 풍경과 섬의 역사·이야기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투어로, 울릉을 처음 찾는 관광객은 물론 재방문객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경북)=박병률 기자 pbr34@

‘케빈 워시’ 연준의장 지명 여파… 韓 고강도 규제 ‘멈칫’

〈쿠팡 Inc 사외이사〉

쿠팡 NYSE 상장 주도 핵심참모
김범석 쿠팡의장과 하버드대 동문
與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 연기
한미 통상·규제 논쟁 민감성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를 지명하면서 국내유통업계와 정치권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워시 지명자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 사외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쿠팡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정치권 또한 규제 행보에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워시 지명자는 2019년부터 쿠팡Inc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임원진 8인 중 하나로 이사회 내 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도록 주도한 핵심 참모로 꼽힌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는 하버드대 동문이라는 학연으로도 얹혀 있다.

워시 지명자가 보유하고 있는 쿠팡 주



케빈 워시 쿠팡 사외이사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되며 쿠팡을 향한 국내 규제가 미뤄지고 있다.

식은 약 47만 주(약130억원)에 달한다. 연준 규정에 따라 취임 전 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처분해야 하지만, 지난 6년간 쿠팡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이력은 무시할 수 없다.

‘워시 지명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당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 바로잡기 TF’를 출범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을 지로위원회는 TF 출범 시기를 잠정 연기했다. 2월로 예정된 쿠팡 국정조사 진행도 불투명하다. 쿠팡 사태가 자칫하면 한미외교·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언급했다는 보도 이후 관세 인상까지 이어지자 미 연방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쿠팡 제재에 미국 정부가 사실상 보복 조치를 취한 셈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 관세 인상이 쿠팡 압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과 관련 “쿠팡 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일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 압박이 쿠팡 제재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분석에 “미국 정부 확인 의사와 다르다”며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가 기존 관세 협상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일 뿐, 쿠팡의 레버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학계에선 워시 지명자가 쿠팡 등 한미

통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분석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으나 워시 지명 이후 한미 통상 갈등 우려로 압박 수위가 낮아지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워시의 영향력으로 인해 쿠팡이 한미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온플랫 등 강도 높은 규제 추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연준 의장이 개별 기업 이슈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기에 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한미 통상 및 규제 논쟁의 맥락에서 정치적 민감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쿠팡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자 신뢰 확보, 그리고 정책 전문성을 위해 워시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던 큰 그림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빛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삼양라운드스퀘어, 임직원과 미래비전 공유

명동 신사옥 이전 ‘하우스-워밍 데이’
김정수 부회장, 직접 현장소통 나서
“新 지향점 정립하는 출발점 될 것”

삼양라운드스퀘어는 명동 신사옥 이전을 기념해 지난 30일 임직원 소통 행사인 ‘하우스-워밍 데이(Housewarming Day)’를 개최하고,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이 임직원과 직접 소통하며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룹의 시초가 마련된 명동으로의 복귀를 기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세 확장을 위해 노력해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하우스-워밍 데이’ 행사를 단순한 사옥 이전 축하를 넘어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미래 비전을 임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전략적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확장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수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임직원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 부회장은 신사옥으로 출근하는 임직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이른 오전부터 로비에서 대기하며, 새 터전에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로 시루떡과 커피



명동 신사옥에서 열린 ‘하우스-워밍 데이’ 행사에서 임직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있는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를 전달했다. 김 부회장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사옥 이전 축하 인사와 함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격의 없는 스킨십 경영을 펼쳤다.

환영 행사를 마친 뒤에는 약 1시간 동안 임원, 팀장 이상 직책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명동 신사옥 이전을 삼양라운드스퀘어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그룹의 새로운 지향점과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공유했다.

김 부회장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명동 신사옥은 단순히 업무 공간을 옮긴 것 이 아니라 세계와 직접 소통하는 무대이

자 그룹의 새로운 지향점을 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공간”이라며 “우리의 핵심 가치인 ‘Food for Thought’를 그룹의 최상위 경영 비전으로 삼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삼양만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기준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기준으로 ▲조직의 가치와 기준을 높이는 리더십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프로세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의사결정 체계를 제시하며 명동 신사옥을 그룹의 미래 비전을 완성할 전략적 기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비전 발표 이후에는 임직원들의 질문에 김 부회장이 직접 답하는 Q&A 세션이 이어졌다. 경영 현안과 차세대 성장 전략, 조직 문화 혁신, 리더십 방향, 신사옥 업무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명동 신사옥 이전이라는 의미 있는 시점에 임직원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속을 다지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 설 맞이 160여종 주류 선물세트

‘가성비’ 2병 묶음 와인세트부터
1억3900만원 럭셔리 위스키까지

롯데마트가 1만원대 초저가 와인부터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까지 다채로운 주류 선물세트를 앞세워 설 대목 잡기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총 160여 종의 주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고를 때 시대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해 2병 묶음 와인 세트 구색을 늘렸다. 실제 사전예약 기간 와인 판매량 상위권을 훨씬 ‘프랑스 루 와인 2종’ 등 3~4만 원대 상품이 주력이다. 받는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는 ‘DIY 와인 선물세트’도 인기다. 고객이 원하는 와인을 선택하면 전용 케이스에 담아주는 방식인데, 전체 와인 선물세트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2026년 병오년(붉은 말의 해)을 맞아 기획한 한정판 상품도 눈길을 끈다. 롯데마트는 ‘글렌알리카 13년 말띠 에디션’, ‘조니워커 블루 말띠 에디션’ 등 소장 가치를 높인 띠 마케팅 상품 물량을 지난해보다 25% 가량 늘렸다.

주류 전문매장 보틀뱅커에서는 ‘초력 셔리’ 수요를 정조준한다. 역대 최고가인 1억3900만원짜리 위스키 ‘맥캘란 피터 블레이크’ 다음 투 워크’를 비롯해 3880만원대 ‘달모어 45년’ 등을 선보이며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한다.

/손종욱 기자

CJ제일제당, ‘콩 100%’ 원물 간식 선봬

병아리콩·검은콩 활용한 ‘맛콩’ 2종

CJ제일제당이 웰니스 트렌드 확산에 맞춰 원물간식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바로 먹는 100% 콩 간식’ 신제품 ‘맛콩’ 2종(사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식물성 단백질 원물인 콩을 그대로 활용한 ‘맛콩’은 ‘병아리콩’과 ‘검은콩’ 두 가지로 선보였다. 최적의 침지(浸漬) 조건 설계로 죽죽한 형태와 식감을 구현하고, 콩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극대화했다. 한 봉지 당 단백질 함량은 병아리콩 제품 4g, 검은콩 제품 8g이다.

병아리콩과 검은콩은 최근 건강식단의 온라인 주요 연관 검색어에 ‘고단백’ 키워드와 함께 언급되며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30~40대 직장인과 식단관리 중인 소비자들 중



심으로 ‘건강한 단백질 간식’이라는 긍정적 후기가 쌓여가고 있다.

CJ제일제당 공식몰 CJ더마켓과 GS 25, CU 등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달 4일부터는 CJ더마켓에서 기획 전을 진행,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건강식단 트렌드 속에서 원물간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CJ제일제당은 ‘맛콩’이 원물간식의 원조이자 스테디셀러인 ‘맛밤’ 매출의 5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우리와, ‘케이펫페어 대전’서 제조공정 체험

오는 6일~8일 체험부스 운영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이하 우리와)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케이펫페어 대전(2026 K-PET FAIR DAEJEON)’에 참가한다.

‘2026 케이펫페어 대전’은 약 200여 개 업체, 320개 부스 규모로 열리는 중청권 대표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북 음성에 위치한 ‘우리와 펫푸드 키친’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대전 지역 보호자들에게 브랜드 철학과 제조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와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5 메가주 일산’에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우리와 펫푸드 키친’ 체험형 부

스 콘셉트를 이번 행사에도 재현한다. 전시 부스는 ‘우리와 펫푸드 키친’의 실제 동선을 반영해 ▲원재료 입고 및 선별을 담당하는 레드존 ▲배합·가공 등 핵심 제조 공정이 이뤄지는 옐로우존 ▲완제품 포장과 최종 품질 검증을 진행하는 블루존 등 3개 존으로 구성된다. 관람객은 실제 생산 공정과 동일한 흐름에 따라 펫푸드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ANF, 이즈칸, 웰츠, 브이오엠 알엑스, 프로베스트 등 우리와의 주요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며, 제품 샘플 증정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리온몰’ 알림 신청 이벤트, 브이오엠 알엑스 수의사 영양학상담 코너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차도 모바일로 샀다… 작년 온라인 쇼핑 270조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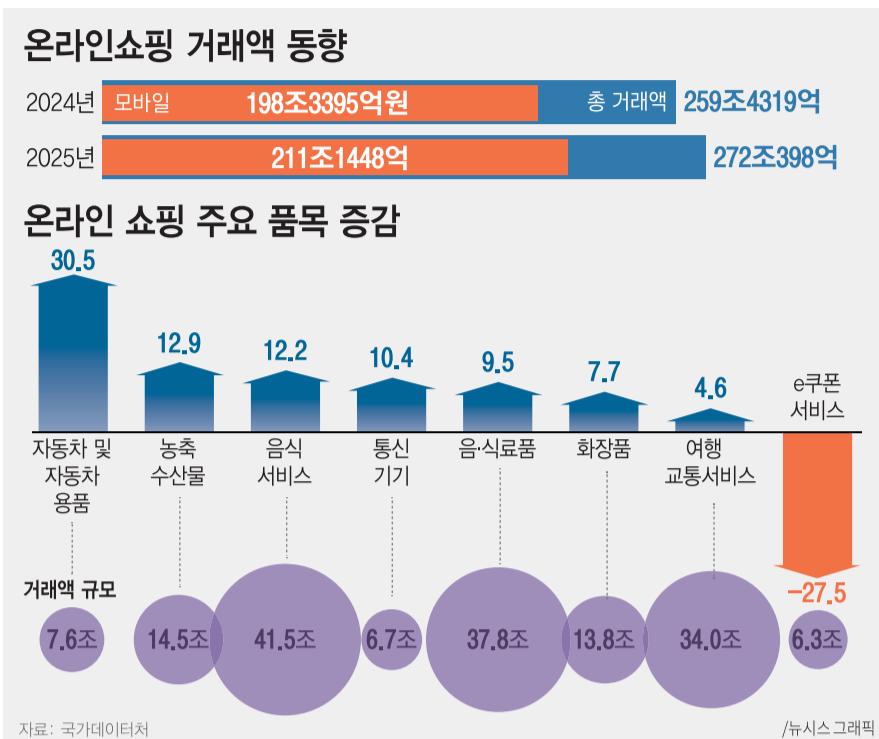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 온라인쇼핑동향 자동차·식음료 부문, 성장 견인 티메프 사태로 연간 증가율은 최저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7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동차·자동차용품 부문이 2024년에 비해 30%나 증가했고, 음식서비스와 음·식료품도 각각 10% 안팎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4.9% 늘어난 272조3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최대치다.

또 전체 소매판매액(654조8833억 원)에서 온라인쇼핑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대 가장 커졌다. 2025년 기준 이 비중은 전년대비 0.8%포인트(p) 오른 28.2%였다.

반면 연간 증가율은 역대 가장 낮았



다. 2024년 7월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율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하다 2024년에 7.1%, 2025년에 4.9%로 둔화했다.

상품군별로, 티메프 사태 여파로 이 쿠폰서비스(-27.5%)가 크게 감소했

다. 가구(-2.3%), 가방(-11.1%), 신발(-4.5%) 등도 감소했다. 이에 반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0.5%), 음식서비스(12.2%), 음·식료품(9.5%) 등에서는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2024년 1분기 12.2%, 2분기 9.8%를 기록한 뒤 3분기 4.5%, 4분기 2.7%, 2025년 1분기 2.6%, 2분기 1.9%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후 지난해 3분기 8.9%, 4분기 6.1% 등 반등 추이를 보였다.

권동훈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

과장은 “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1분기와 2분기가 많이 낮았고,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9%와 6%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며 “상반기 때 좋지 않았던 흐름이 하반기 들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2904억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2% 늘었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8.3%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월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1월 1.6%, 2월 3.7%, 3월 2.5%, 4월 2.8%, 5월 0.6%, 6월 2.2% 등 다소 부진했다. 이후 하반기 들어 7월 7.8%, 8월 6.0%, 9월 13.0%, 10월 5.5%, 11월 6.5%, 12월 6.2% 등으로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12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8조 7991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2% 늘었다. 전체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77.4%를 기록했다.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는 의복(-5.0%), 신발(-10.9%), 가방(-5.3%) 등에서 감소했지만, 음식서비스(9.1%), 음·식료품(10.2%), 농축수산물(12.2%),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66.4%), 통신기기(20.9%) 등에서 늘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5.8%), 음·식료품(13.3%), 여행 및 교통서비스(12.4%)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CJ올리브영, 외국 관광객 맞춤 할인 늘린다

돈키호테와 손잡고 日 고객 이벤트 중국인 대상 간편 결제 서비스 행사

CJ올리브영은 오는 3월31일까지 일본 최대 잡화점 돈키호테와 협업한 ‘일본 고객 대상 신규 행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리브영엔(N) 성수, 명동 타운, 흥대 타운 등 글로벌 관광 상권 내 위치한 14개 매장에서 진행한다. 해당 매장에서 돈키호테 회원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최대 명절연휴인 춘절을 앞두고 중국 관광객 맞춤형 할인도 마련했다. 중국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리폐이·위챗페이·유니온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와 연계해 결제 시 즉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결제 플랫폼 ‘와우패스’, 글로벌 여행 예약 플랫폼 ‘트립닷컴’ 등에서도 국적과 무관하게 활용 가능한 마케팅을 강화한다.

특히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 판매도



늘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미리 구매하도록 해 쇼핑 편의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지난 2025년부터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을 통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올리브영 모바일상품권을 선보여 왔다. 올해 1월부터는 베트남과 일본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모바일 상품권을 구

매할 수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뷔티, 패션, 미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K뷰티 대표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과 혜택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알테오젠, 작년 매출액 2021억 ‘사상 최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수출 성과

바이오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은 2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도 별도기준 매출액 2021억원, 영업이익 1148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4년 실적 대비 매출액은 117%, 영업이익은 275%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33%에서 57%로 상승했다.

이번 실적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에 따른 수익이 반영된 성과다. 글로벌 빅파마 아스트라제네카

와의 라이선스 계약 계약금과 피하주사(SC) 제형 키트루다 큐렉스의 미국 및 유럽 승인 마일스톤 등이 포함됐다.

또 중국 파트너사 치루제약이 판매 중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안곡타에 대한 판매 로열티 수익과 ALT-B4 공급 매출도 기록됐다.

알테오젠은 올해부터는 판매와 연동되는 마일스톤 유입이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4월 발효 예정인 키트루다 큐렉스의 J-code 부여로 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판 국가가 확대되면서 피

SK바이오파, ‘오픈 이노베이션’ 본격화

유망 스타트업 발굴

SK바이오파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플랫폼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 여량 강화와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국내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발굴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추신경계(CNS)·항암·인공지능(AI)·노화(비미용 분야) 등 신약 개발 혁신 기술 및 신규 모달리티 분야에서 설립 8년 미만의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를 거쳐 SK바이오파 핵심 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해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이정하 기자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로 실적 반등

지난해 매출 260% 급증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해 매출 534억원과 영업이익 126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60%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영업손실 48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역시 13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반등했다.

이번 호실적은 제37호 국산 신약인 위식도여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매출이 견인했다. 또 중국 임상3상 성공 및 허가신청에 따라 중국파트너사 리브존으로부터 수취한 기술이전 마일스톤 수익이 반영됐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의 원외처방 데이터에 따르면, 자큐보의 월처방액은 2024년 10월 약 5억원에서 2025년 12월 약 6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정하 기자

출시 후 1년 남짓한 기간 만에 약 13배 증가한 규모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 매출 성장세에 힘입어 자체 개발한 신약이 창출한 수익을 다시 후속 신약에 재투자하는 R&D 선순환 구조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차세대 항암 신약파이프라인으로 네수파립을 확보했고, 췌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암 등 총 4개 적응증에서 임상 2상 단계에 착수했다. 특히 네수파립을 특정 암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적응증에 듣는 팬튜머(Pantumum)치료 신약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올해 국내외 주요 학회를 통해 네수파립의 성과를 지속 공유하며 네수파립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KT,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KT는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국립생태원의 환경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습지에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KT와 국립생태원 직원들이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측정 상황과 데이터를 태블릿PC로 원격 모니터링하고 있다.

/KT



CJ대한통운, 전국장애인동계체전 8개 메달 획득
CJ대한통운은 자사 소속 장애인스포츠단 선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평창 휴니스파크 등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해 총 8개(금 2·은 5·동 1)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한 이제혁 선수. /CJ대한통운



NH농협은행, 설 명절 '윤리공감 우체통' 캠페인

NH농협은행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임직원 간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3 일까지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윤리공감 우체통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NH농협은행



웰컴어소씨에이츠, 충정로 시대 개막

웰컴어소씨에이츠가 서울 충정로에 신규 사옥을 마련하고, 기존 PR 서비스에서 축적해온 핵심 역량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미디어 콘텐츠 영역으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고 2일 밝혔다. 웰컴어소씨에이츠 서울 충정로 신규 사옥 실내. /웰컴어소씨에이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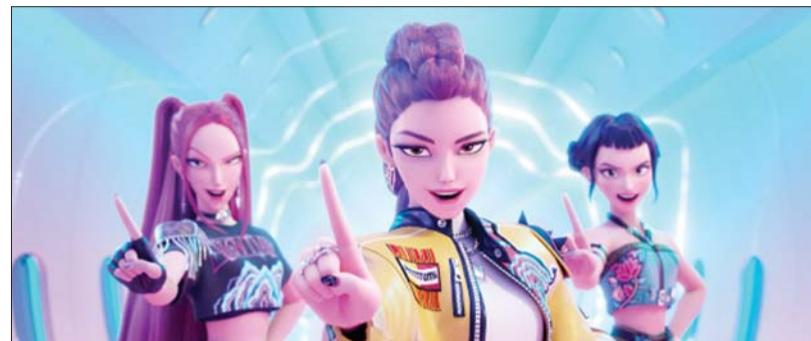
중진공, 규제합리화 유공 정부포상서 '대통령 표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 규제합리화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장'을 수상했다. 중진공 이병철 부이사장(오른쪽)이 규제합리화 유공 대통령 표장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새 역사 쓴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넷플릭스 역사상 최다 시청 영화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그래미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리스'가 부른 '골든'은 2일(한국시간) 그래미 측이 본 시상식 전 사전 발표한 '제 68회 그래미 어워즈' 일부 수상자 목록에서 노래를 만든 송라이터에게 주어지는 상인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그래미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뉴스

을 차지했다.

'골든'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통산 8주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앞서 '제

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선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곡을 작사, 작곡한 한국계 미국 작곡가 겸 가수 이재(EJ

AE)와 작곡에 참여한 테디(박홍준), 24(서정훈), 프로듀싱팀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 더블랙레이블 프로듀서들은 그래미 수상자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이 '그래미 어워즈' 사전 시상식(Premiere Ceremony)에서 해당 부문을 차지한 직후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2025년 가장 강력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중 하나이자 넷플릭스 역사상 최다 시청 영화로 기록됐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K팝 사상 최초의 그래미 수상'이라는 새로운 기록까지 추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미옥 기자 mol@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협력사 대금 2조 선지급

자금 부담 덜고 경영 안정 도모

현대자동차그룹이 설 명절을 앞둔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상생 활동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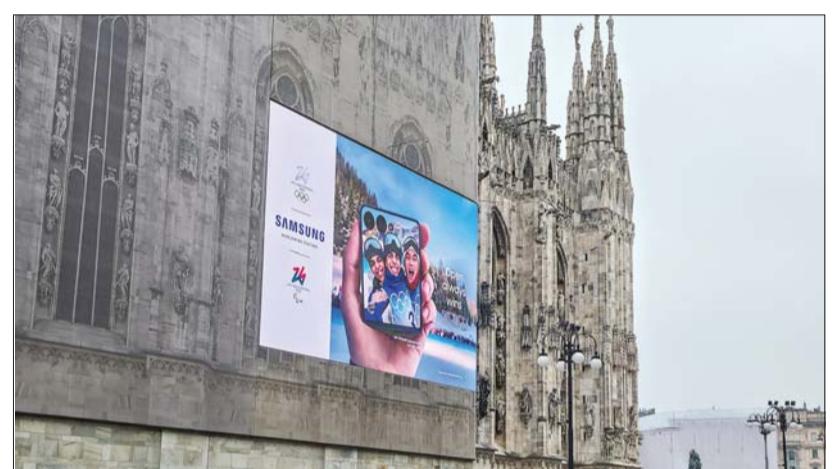
현대차그룹은 설 연휴 전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돋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납품대금 2조 768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등 주요 그

룹사가 시행하며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에도 2·3차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권고해 자금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사 전반의 재정 불확실성을 줄이고 조기 지급 효과를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선지급해 왔다. 지난해에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각각 2조 446억 원, 2조 228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가 밀라노 두오모에서 진행 중인 올림픽 옥외광고. /삼성전자

'팀 갤럭시', 밀라노서 올림픽 메시지 전해

삼성전자, 28일까지 옥외광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옥외광고 통해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페리올림픽 옥외광고를 ▲밀라노 두오모 ▲산 바벨라 ▲카르도나

▲포르타 베네치아 등 밀라노 전역 랜드마크를 포함해 총 10곳에서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일부 옥외광고는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옥외광고는 '팀 삼성 갤럭시' 선수들이 참여해 삼성전자의 올림픽 메시지인 '열린 마음은 언제나 승리 한다'를 전한다.

광고에 참여한 선수들은 올림픽 여정을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 코치 등 소중한 이들과의 함께한 순간을 갤럭시 Z 플립7으로 촬영해 '빅토리 셀피'로 담아냈다.

삼성전자는 30년 가까이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모바일 기술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이 올림픽을 보다 가깝게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의학회 의학공현상에 김동집 교수

부채표 가송재단 시상식
윤광열 의학상에 조명래 교수



'제11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현상' 수상자 김동집 교수(왼쪽)와 '제16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 조명래 교수. /동학약품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한의학회는 '제11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현상' 수상자로 가톨릭대학교 김동집 명예교수를, '제16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 조명래 교수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명

래 교수를 선정했다. 대한의학회의 학공현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 기반 조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정 기자 mlee236@

한화모멘텀 신임 대표에 홍순재

한화모멘텀은 새 대표이사로 홍순재 대표(사진)를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테크·라이프 부문을 중심으로 독립 경영에 나서는 과정에서 이뤄진 후속 인사로 풀이된다. 홍신임 대표는 한

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삼성항공(현 한화 비전 전신)에 입사해 경영지원실장과 글로벌사업운영 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한화 비전 미래혁신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화그룹 테크 솔루션 부문의 미래 성장 사업 발굴을 주도해 왔다. /원관희 기자 wkh@

롯데시네마, 경기 컬처패스로 혜택 넓혀

경기도민 영화 관람 지원

돕는 정책이다. 롯데시네마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도민들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을 넘어 롯데시네마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특화관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혔다.

롯데시네마는 경기 컬처패스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문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음

▲유병연씨 별세, 정기채·정홍재·정영채(메리츠증권 고문, 前 NH투자증권 사장)씨 모친상, 김말태·김미화·배금현씨 시모상, 정현아·정진영·정현숙·정진호·정진주·정진경·정진웅씨 조모상, 김수봉씨 외조모상 = 2월 2일, 대구보훈병원장례식장 11호실(3층),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의왕 하늘쉼터. (031)787-1500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신희

주최·제작 극단 지우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여의도를 지배하는 팬덤



기고

안동현

前 국민의힘 윤리위원

정치권은 바야흐로 '팬덤'의 시대다. 과거 노사모가 정치인 팬덤의 서막을 알렸다면, 지금 여의도를 지배하는 팬덤은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민주당의 개발(개혁의 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의 등장을 보며 "전체주의적 행태"라 비판하던 보수 정당 역시, 이제는 팬덤 현상 한가운데 서 있다. 이러한 팬덤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대상만 다를 뿐, 방식은 놀랍도록 유사하다. 특정 인물을 절대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악으로 간주하며 집단행동에 나선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인물을 아이돌처럼 소비하고, 그를 맹목적으로 호위하는 이 현상.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정치 문화인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중우(衆愚)정치로 퇴행하는 징후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팬덤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의 무력화다. 과거 정치는 정당이라는 시스템 안에

서 정책과 노선으로 경쟁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능동적인 대중이 등장한 지금, 정당의 시스템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제는 정당을 거치지 않고 유력 정치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내 손으로 정치인을 키우고 지킨다는 정치적 효능감은 투표장에만 머물던 유권자를 광장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로 끌어냈다.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힌 참여의 에너지다.

문제는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이다. 팬덤 정치의 핵심 동력은 배타적 분노다. "우리 정치인을 지켜야 한다"라는 비장함은 내부의 건전한 비판조차 배신으로 낙인찍는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당내 비판 세력을 '수백'이라 부르며 좌표를 찍었던 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국민의힘에서도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지금의 팬덤 정치는 정치인을 공적 대리인이 아닌, 욕망이 투영된 아버타이자 아이돌로 변질시키고 있다.

정당의 생명은 다양성과 자정 능력에 있다. 그러나 팬덤의 화력이 당의 시스템을 압도하는 순간, 정치인들은 당론이나 양심 보다 당원 게시판의 여론을 먼저 살피게 될 것이다. 극단적 목소리만 과대 대표되는 반

지성주의가 당을 잠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팬덤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팬덤 현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수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새로운 문화라고 긍정하며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당은 팬덤의 함성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은 팬덤 뒤에 숨는 비겁함을 벼려야 한다. 지지자들의 환호가 달콤할지도, 그들이 배타적인 공격성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자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남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정치인의 자격이다.

지지자들 또한 변해야 한다. 진정한 지지자는 맹목적인 숭배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치인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지, 품격을 잃지 않는지 감시하는 눈을 가질 때 팬덤은 비로소 건강한 정치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의도를 집어삼킨 팬덤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가 될지, 정치를 혁신하는 도구가 될지는 오직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맹신하는 신도가 될 것인가, 깨어있는 시민이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前 국민의힘 윤리위원

'먼저 온 미래'의 과제



기자 수첩

허정윤

(자본시장부)

"‘오천피’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퇴근길 대중교통 안, 옆 자리에서 들려온 말이다. 코스피 4000을 넘어 선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5000이 현실이 됐고, 먼 미래로 여겨졌던 숫자가 일상이 됐다. 이른바 '먼저 온 미래'다.

다만 설불리 죽배를 들기엔 아직 이른 것 아닐까.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에 그쳤고, 4분기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숫자만 보면 자본시장은 질주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의 체력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증시의 쏠림도 분명하다. 코스피 상승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의 전망이 급변한 것도 아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 컨센서스와 증권사의 중기 전망은 지수 상승 속도에 비해, 시장의 구조적 완성도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방증이다. 실제로 차기 미 연준 의장 후보 지명이라는 변수 하나에 오천피는 하루 만에 크게 흔들렸다. 지난주 5300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2일 장중 5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반면 투자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1억개를 넘었지만, 문제는 이 대중화가 기업의 펀더멘털과 거버넌스·실물경제 개선과 보폭을 맞추고 있느냐.

주가순자산비율(PBR) 상승은 일부 대형주의 주가 급등 결과일 뿐, 중소형주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ROE 개선 없이 이어지는 주가 상승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코스피 5000은 결과일 뿐, 개혁의 완성이나 펀더멘털의 확산을 보장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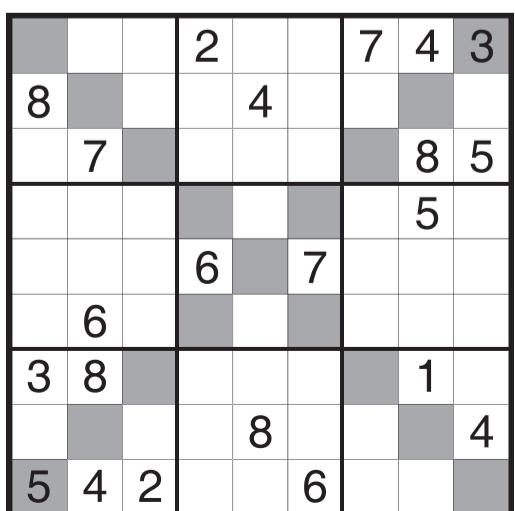
지금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은 개인의 판단력 문제가 아니다. 참여는 집단화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학습·정보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지수의 높낮음에 환호하거나 비관하기보다, 그 숫자를 떠받치는 기업의 수익성·거버넌스·실물경제가 얼마나 넓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이는 투자자의 태도 문제를 넘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신뢰가 함께 따라와야 가능한 일이다.

건강한 기업과 성숙한 투자 문화가 동반되지 않은 상승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zelkova@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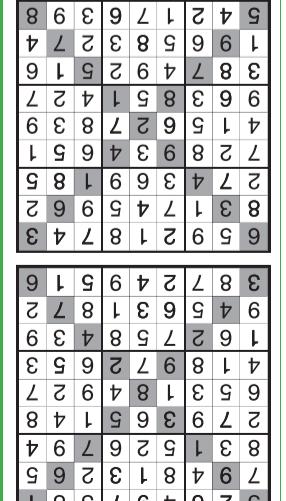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오늘의 운세 2월 3일 (음 12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60년생 학습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72년생 창의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84년생 감정 표현은 한 단계 나눠 보는 편이 효율적. 96년생 가정사는 말을 아끼는 편이 유익.

61년생 일의 판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73년생 충돌은 조건을 가려보는 대응이 유익. 85년생 정돈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97년생 사람 사이에서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62년생 금전은 한 단계 나눠 보는 판단이 효율적. 74년생 일 처리는 말을 아끼는 쪽이 유익. 86년생 몸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98년생 이동은 조건을 가려보는 편이 유익.

63년생 지금은 학습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75년생 당장은 창의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87년생 이번엔 감정 표현은 한 단계 나눠 보는 편이 효율적. 99년생 한 번쯤 가정사는 말을 아끼는 편이 유익.

64년생 가능하면 일의 판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76년생 오늘은 충돌은 조건을 가려보는 대응이 유익. 88년생 지금은 정돈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00년생 당장은 사람 사이에서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65년생 이번엔 금전은 한 단계 나눠 보는 판단이 효율적. 77년생 한 번쯤 일 처리는 말을 아끼는 쪽이 유익. 89년생 가능하면 몸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01년생 오늘은 이동은 조건을 가려보는 편이 유익.

66년생 지금은 학습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78년생 당장은 창의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90년생 이번엔 감정 표현은 한 단계 나눠 보는 편이 효율적. 02년생 한 번쯤 가정사는 말을 아끼는 편이 유익.

67년생 가능하면 일의 판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79년생 오늘은 충돌은 조건을 가려보는 대응이 유익. 91년생 지금은 정돈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03년생 당장은 사람 사이에서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68년생 이번엔 금전은 한 단계 나눠 보는 판단이 효율적. 80년생 한 번쯤 일 처리는 말을 아끼는 쪽이 유익. 92년생 가능하면 몸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04년생 오늘은 이동은 조건을 가려보는 편이 유익.

69년생 지금은 학습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81년생 당장은 창의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93년생 이번엔 감정 표현은 한 단계 나눠 보는 편이 효율적. 05년생 한 번쯤 가정사는 말을 아끼는 편이 유익.

70년생 가능하면 일의 판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82년생 오늘은 충돌은 조건을 가려보는 대응이 유익. 94년생 지금은 정돈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06년생 당장은 사람 사이에서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71년생 이번엔 금전은 한 단계 나눠 보는 판단이 효율적. 83년생 한 번쯤 일 처리는 말을 아끼는 쪽이 유익. 95년생 가능하면 몸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07년생 오늘은 이동은 조건을 가려보는 편이 유익.



김상회의四季

삼재

예로부터 삼재는 식구 중에 삼재가 들면 집안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몸과 마음이 분주해진다. 근심도 근심이지만 삼재를 잘 넘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삼재의 기본적 의미는 대삼재(大三災)와 소삼재(小三災)로 나눈다. 대삼재는 물, 불, 바람으로 인한 수재, 화재, 풍재를 칭한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연재해였고 그 재해는 물, 불, 바람으로 인했다. 과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현대라 할지라도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 등 물, 불, 바람의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의 무력을 실감한다. 소삼재는 사람에게 닥치는 세 가지 재해, 즉 도병(刀兵), 기근(饑饉), 질역(疾疫)이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더하여 관재구설이나 인간사 흥액은 삼재 때 많이 발생한다.

삼재를 따질 때는 십이지(十二支)에 따라 세 종류의 땨가 삼년을 단위로 하여 첫해를 들 삼재, 두 번째 해를 놀 삼재, 셋째 해는 날 삼재로 나눈다. 속설에는 둘 삼재보다 날 삼재가 더 무섭다는 말도 있는데, 삼재가 나가는 해라고 경기망동하지 말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삼재라 하여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니 만약 대운이 좋게 들어온 개인의 경우라면 그 사주와 운세에 따라 복 삼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꾼 IMF 때 국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때 오히려 재운의 운세가 상승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자신의 사주명조의 힘이 더 강했다는 뜻도 된다. 영웅호걸은 평화의 산물이 아니라 급변하는 혼란기에 탄생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삼재가 들었다고 두려워하기보다 우선 자신의 운기를 살펴야 한다. 삼재는 겁을 주기 위한 기호가 아니라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인생사 유비무환의 지혜가 담겨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584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195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시교육감 공식 선거전 임박 다자 구도 속 진영 단일화 '변수'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진보·보수 다수의 후보 이름 올려
정근식 교육감, 재선 도전 유력해
지난 1년여간 교육행정 평가 중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밝힌 데 이어,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을 지낸 김현철 서울 교육자치시민회의 대표와 홍제남 다같이 배움연구소장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가운데 현직인 정근식 서울시교

육감의 거취도 선거 구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아직 재선 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보궐선거 이후 480여일간 서울 교육을 이끌며 정책 방향과 행정 기조를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사회가 필요로 한다면 결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의 교육 행정이 각 후보의 공약을 기능하는 주요 비교 기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현직 교육감의 정책 성과와 행정 경험이 '검증된 선택지'로 인식되며,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보수 진영에서도 후보군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임해규 전 두원공과대학교 총장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류수노 전

29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선거전이 공개 국면으로 전환된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진보·보수 진영 모두에서 다수의 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고3 학기 초부터 2027 대학입시 돋는다

서울시교육청, '쎈 진학' 본격 가동
진학정보 자료집·동영상·설명회 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은 예비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가 2027학년도 대학입시를 학년 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학 지원을 추진한다.

2027 대입은 ▲전공자율선택제 선발의 안착 ▲의대 정원 변화 ▲학생부 위주 전형의 정성평가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공신력 있는 진학 정보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예비 고3 수험생이 학기 초부터 대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집 제공, 주제별 진학지도 동영상 제작, 진학 설명회 개최로 이어지는 밀착형 진학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학 지원에는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다. 쎈(SEN)진학 교사용 프로그램과 쎈(SEN)진학 나침판 모바일 앱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경험이 반영된 신뢰도 높은 진학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쎈(SEN)진학 2027 대입 고3 학년 초 자료집'을 6일까지 제작·배포한다. 자료집에는 2026 대입 결과 분석과 2027 대입의 주요 변화, 학년 초 준비 전략 등이 담겼

다. 해당 자료는 e-book 형태로도 제작돼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탑재되며,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활용할 수 있다.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쎈(SEN)진학 2027 대입 대비 주제별 진학지도 동영상' 5편도 제작한다. 동영상은 10일부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를 통해 제공된다.

아울러 '쎈(SEN)진학 나침판 고3 학년 초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 설명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열린다.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는 '서울교육 쌤TV'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 15만원으로 인상

청소년·준고령층에 1만원 추가지원

서울문화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늘려 연간 15만원으로 인상하

고, 올해 카드 발급과 사용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복권기금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 계

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670억원 규모로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 지원금 15만 원에 더해 '청소년기, 준고령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1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요르단, 마약단속 작전 13건…35명 체포, 무기·마약 다량 압수
▲美-이란 충돌시 中, 이란 적극 돋지 않을 것

/사진 뉴시스

▲총선 앞둔 日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 계속…무당파도 품었다
▲美, 이란에 협상 의사 전달…이번주 고위 회담 가능성도

/사진 뉴시스

고려대, 뇌신경 질환 조기진단 기술 개발

고려대 연구팀, AI기반 센서 개발
침 활용해 파킨슨·알츠하이머 진단



(왼쪽부터)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정호상 교수(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양승호 교수, 한국재료연구원 박성규 박사(공동저자)

/고려대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침을 활용해 뇌신경 질환을 비침습적으로 선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 초기 증상이 불분명한 퇴행성 뇌질환의 조기 진단은 물론, 현장형 검사 도입 가능성도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2일 고려대에 따르면, 정호상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양승호 가톨릭 대성빈센트병원 교수팀 및 박성규 한국재료연구원 박사팀과 함께, 침으로 뇌신경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센서 플랫폼을 개발했다.

뇌신경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나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쉽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표면증강 라만 산란(SERS) 기술 기반의 센서를 개발했다. SERS는 분자가 빛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내는 고유한 신호를 감지하는 분석 기법으로, 연구팀은 센서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해 침 속 극미량의 단백질 신호

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신호가 더 뚜렷하게 포착되도록 GME 기술도 적용했다.

연구팀은 이 센서를 활용해 대표적인 신경 단백질인 A β 42와 tau를 분석하고, 단백질의 상태에 따라 스펙트럼 신호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침 속 신경 단백질 변화를 판별할 수 있는 분석 지표를 도출했다. 이어 실제 임상 침 시료 67건에 적용한 결과, A I 모델을 통해 뇌전증·조현병·파킨슨병 등 3종 뇌신경 질환을 93.94%의 정확도로 구분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별도의 침습적 검사 없이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진단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유망기업 30개사 투자유치 지원

경과원과 도내 기업 글로벌 성장 도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유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인베스트(INVEST) 경기' G-Value(투자유치 유망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경기'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도내 유망기업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25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100회,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IR) 6회, 글로벌 투자유치단 3회 파견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참여기업 가운데 7개사가 총 221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완료했으며, 5개사는 기술협력·투자유치·파트너십 분야에서 총 6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6년 모집 규모는 신규 참여기업 25개 사와 연속 지원이 필요한 후속 기업 5개 사를 포함해 총 30개 사다. 올해는 도 전략산업 중 투자유치 유망 분야인 AI·IT·로봇, 바이오·기후테크·푸드테크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전문 컨설팅 운영사를 2개 사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으로, 도 전략산업 또는 투자유치 유망산업을 영위하며 글로벌 투자유치 계획을 보유한 기업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

오늘의 날씨

2월 3일 (火) 음력 : 12월 16일

수도권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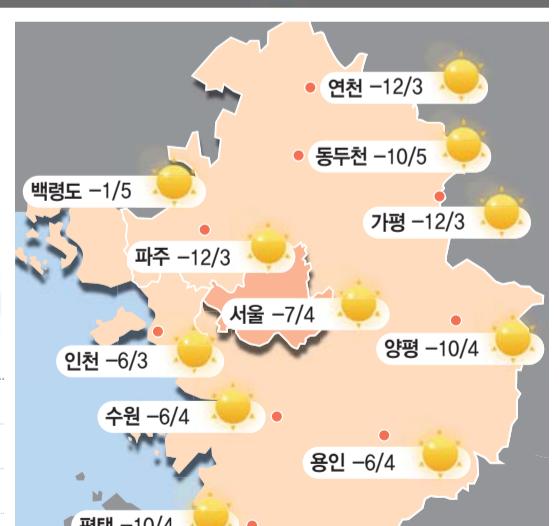
-7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요르단, 마약단속 작전 13건…35명 체포, 무기·마약 다량 압수
▲美-이란 충돌시 中, 이란 적극 돋지 않을 것

/사진 뉴시스

▲총선 앞둔 日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 계속…무당파도 품었다
▲美, 이란에 협상 의사 전달…이번주 고위 회담 가능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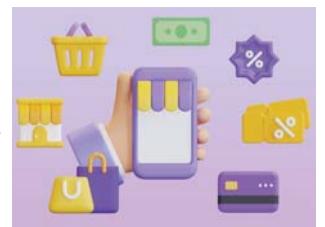
/사진 뉴시스

▲억만장자 성범죄자 타인 러시아 간첩이었나…일각서 의구심 증폭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그래미 오디오북 부문 수상



美 연중 의장에
쿠팡 사외이사 지명
고강도 규제 '멈칫'
L1

지난해
온라인쇼핑 270조
역대 최대
L2



금융,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 넘어 경험·자립까지 돋는다



토스증권

우리의 일상 속 금융생활은 이제 예전과 전히 다르다.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증권 투자 애플리케이션(앱)과 은행 계좌 앱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시대가 됐다. 모바일을 통해 송금하고 결제하며, 투자 정보에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일도 특별하지 않다. 금융·투자 활동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자산가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매일 마주하는 생활 인프라가 됐다.

하지만 금융서비스의 확산 속도만큼 금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여러 연구는 금융거래 경험과 정보 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내리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지식과 행동은 강화되는 반면, 저축 성향이나 미래 대비와 같은 금융태도는 오히려 악화되는 '비대칭적 성장'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교 기반 금융교육이 현실의 금융환경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기서 출발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토스증권은 '금융의 기회를 넓히는 일' 자체를 사회적 책임으로 정의하고, 교육과 연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토스증권의 사회공헌은 흔한 '연말 기부 이벤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금융시장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 온 본업의 철학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 교육과 자립 지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 이해력의 불균형과 기회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춘 사회적 실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교육의 '접근성'에서 '역량 강화'로

토스증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축은 금융교육이다. 단순히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실제 삶 속에서 금융적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알게 하는 교육'을 넘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교육과 결이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환경에서 생활하다 일정 시점 이후 훌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들로, 경제적 기반과 금융 정보가 모두 취약한 경우가 많다. 토스증권은 이들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재무 설계, 투자 기초, 자산 관리 등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강의로 끝나지 않았다. 토스증권 임직원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개인별 상황과 고



토스증권에서 자립준비청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토스증권



토스증권이 진행한 서울시 중장년층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토스증권이 굿윌스토어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을 함께 나누는 맞춤형 멘토링이 이어졌고, 일부 참가자에게는 인턴십 기회도 제공됐다.

금융교육을 실제 진로 탐색과 현장 경험으로 연결한 것이다. 교육 이후에도 스스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는, 금융역량을 '지식'이 아니라 '자립의 기술'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중장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역시 같은 철학 아래 진행됐다. 토스증권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안전한 노후, 똑똑한 선택'을 주제로 40~60대 시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예방 전략,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지며 중장년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토스증권의 금융교육은 연령이나 경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청소년·청년·중장년층 각자의 삶의 국면과 금융 위험에 맞춰 교육 내용을 설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금융지식'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의 재무적 판단력과 책임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천적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기부를 넘어 자원의 재순환까지…굿윌스토어의 연대

토스증권의 사회적 책임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회사는 굿윌스토어와의 협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과 장애인 자립을 동시에 고려

일상이 된 금융생활… 기회 확장 도와
교육·연대 중심 사회공헌 활동 펼쳐

자립준비청년 대상 금융교육·멘토링
강의 넘어 진로탐색·현장경험 기회까지
금융사기 예방 등 중장년층 맞춤 교육

굿윌스토어와 협업… 자원 재활용 앞장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자립 지원도

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토스증권은 '굿사이클링 캠페인'에 동참해 투자 행사에서 사용한 의자 200여 점,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이 물품들은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되고, 그 수익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 지원에 사용된다. 단순히 물품을 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된 자원 → 판매 → 고용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굿사이클링 캠페인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토스증권은 2023년 연말 임직원 참여 기부 캠페인을 계기로 굿윌스토어와 인연을 맺은 뒤, 이번 기증을 통해 두 번째 나눔을 이어갔다. 이러한 연대는 일회성 후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다

토스증권의 사회공헌 활동은 '선행'이나 '이미지 제고'에 머무르지 않는다.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온 본업의 문제의식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금융거래 경험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책임 있는 금융행동과 장기적 재무 관점은 여전히 개인별 격차가 크다. 토스증권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금융교육과 자원 순환 활동을 통해 금융을 '권리이자 기회'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금융 교육과 실질적 경험이 모든 세대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해 금융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은 이제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 도구가 됐다. 토스증권의 사회공헌 로드맵은 금융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실천으로 보여준다. 더 쉽게 투자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더 잘 이해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돋는 것. 토스증권이 그리는 사회적 금융의 방향은, 금융이 일상이 된 시대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설 연휴에 고궁·왕릉 무료 개방…사흘간 세화 나눔 행사
▲ 뮤지컬 '서편제' 4월 개막…이자람·차지연·소리꾼 김준수 출연

/사진 뉴시스

▲ 서울문화누리카드, 연간 1만원 증액…“문화생활 문턱 낮춘다”
▲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 상대 손배소 2심 내달 시작

▲ ‘김동현 제자’ 김상욱, UFC 진출 좌절…마르판에 완패
▲ 김선호도 가족 법인 의혹…“탈세 목적 아냐, 폐업 절차 중”